

한우미당

vol.194

Hanwoo Journal
2023.01



1월호 표지 이미지

- 30 **신년사**
해안과 도전 정신으로 위기를 극복합니다
김삼주 전국한우협회장

기획특집

- 32 **2023년 '한우산업 기본법' 제정 원년**
40 **이달의 한우인**
홍문표 국회의원

현장·탐방

- 44 **대한한우 농가탐방**
희관농장 유희관 대표
48 **유관기관 가이드**
한국동물약품협회를 소개합니다

32



40



44



이슈·동향

- 53 2022 한우산업발전간담회
58 2023 농림축산식품부 한우정책 전격해부
62 12월 한우동향분석
70 글로벌뉴스
74 한우리포트

사양·컨설팅

- 78 수의칼럼-질병·방역
류일선 아시아동물의학연구소장
82 전문가칼럼-개량
김병숙 한국종축개량협회 경기인천지역본부장
86 컨설팅
지엠디컨설팅
90 법률칼럼
우양태 법무법인 선우 변호사
92 2022 한우탄소중립 정책보고서

문화마당

- 98 토정비결 유래와 의미
102 세계 각국 설날음식
106 2023 새해 달라지는 것들
110 협회사료안내
112 구독안내



전국한우협회

www.kistock.co.kr

대한민국 축산의
가치와 연속성
Value & Continuity
of K-livestock

2023 한국국제축산박람회

Korea International Livestock EXPO 2023

2023. 9. 6(수) ~ 8(금), 3일간 / 대구 EXCO 서관 1층 전 홀 및 야외

전시 참가 기업 모집

참가 신청 기간 2023. 1. 9(월) ~ 5. 31(수) ※ 선착순 / 부스 소진 시 조기 마감

참가 신청 방법 1) 박람회 홈페이지 접속 (www.kistock.co.kr)
'참가 신청 안내' 및 '참가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참가 신청 또는 신청서 다운로드 받아 사무국 메일/팩스로 제출
2) 신청서 제출 후 7일 이내 계약금(참가비 50%) 납부

사무국 연락처 2023 한국국제축산박람회 사무국
Tel | 02-574-0465
Fax | 02-521-4049
E-mail | kistock2023@gmail.com

혜안과 도전 정신으로 위기를 극복합시다

2023년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달력의 첫 장을 보면서 희망에 앞서 막막함과 불안함 역시 크게 느끼실 것입니다. 힘들게 2022년 한 해를 지나왔지만, 안타깝게도 한우산업의 위기는 여전히 거셉니다. 새해 계묘년을 상징하는 흑토끼의 기운으로 고물가 시대, 한우산업에 닥친 위기를 힘차게 ‘경충’ 뛰어넘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한우인 여러분,

한우산업은 그동안 국민의 많은 한우사랑과 가격호황을 누렸지만, 생산비 폭등과 고물가고 금리로 소비시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소값 하락뿐만 아니라 유통, 소비, 축산환경 등 복합적인 변화속에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절망에 굴하는 대신 비장한 각오와 담대한 용기로 허리띠를 졸라매며 위기 극복을 위해 선제적인 자율수급 조절과 생산비 절감에 심 없이 매진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한우인 여러분이 모아주신 성원 덕분에 ‘한우산업 기본법’이란 첫 걸음을 내딛게 되는 큰 성과도 거둘 수 있었습니다. 단언하건대, 최악의 여건에서도 우리 한우인들의 공존동생(共存同生)의 결집된 뜻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더 큰 어려움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김삼주
전국한우협회장

존경하는 한우인 여러분!

다양한 불확실성이 한우산업 안팎을 에워싸고 있는 2023년을 시작하면서 격변기마다 돌출되는 위기에 휘둘리지 않도록 우리에게 던져진 문제를 정면 돌파하고자 합니다.

먼저, 산지가격이 연동되는 한우유통플랫폼을 구축하여 국민이 합리적인 가격에 한우를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한우가격이 소비시장과 연동되지 않아 소값 하락으로 인한 농가 어려움이 국민에게 공감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협회는 전국 480여개 우리한우판매점과 농축협 한우프라자 등과 연계하여 국민이 합리적인 가격에 한우를 즐길 수 있도록 한우가격연동제 등 유통플랫폼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한우 소비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넓히기 위해 한우수출 품목 및 수출국 다변화에 주력하겠습니다.

내수경기 침체로 한우소비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한우 수출활성화로 소값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넓은 시야를 가지고 정부와 함께 중동 및 제3국 역시 적극 나서 현지 실정에 부합하는 홍보전략을 구상하고 수출업체 지원 등 한우수출 방향을 수립하겠습니다.

세 번째, 정확한 정보로 대체식품과 배양육의 도전에 정면으로 맞서 한우의 가치소비를 견인하겠습니다.

축산업 혐오성 홍보로 본질을 가리고 있지만, 모방 식품은 감히 자연산이 주는 맛과 영양을 능가할 수 없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소비자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그 가치 소비의 선택이 한우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지구를 이롭게 하는 한우의 역할을 널리 알려 ‘한우먹는 날’이 곧 ‘지구를 살리는 날’이라는 인식과 가치소비를 확산하겠습니다.

한우가 지구 환경에 주는 유익한 기능과 역할은 무궁무진합니다. 한우가 없다면 발생될 온실가스와 환경파괴에 대한 경각심을 상기시켜 국민 모두가 한우산업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공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우농가 여러분!

2023년, 우리가 맞이한 엄중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책임감 있는 각고의 노력이 절실합니다. 오직 한우산업의 밝은 미래를 기준으로 바른 길을 선택하고, 시대를 꿰뚫는 혜안과 도전 정신으로 위기 극복의 길을 새롭게 개척해 나갑시다. 모쪼록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계묘년(癸卯年)

‘한우산업 기본법’ 제정 원년으로!



민족산업 한우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의 위기가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촉발된 곡물위기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곡물 전쟁으로 비화된 데다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으로 경기침체가 예상되고 있어 한우산업을 감싸는 위기감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민족산업 한우를 지키려는 제도권의 노력은 어디로 갔는가. 산업이 전문화되고 규모화됨에 따라 축종별 별도의 법안이 마련되어 산업 특성에 맞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지원을 위한 법률안 제정이 필요한 상황인 만큼 한우산업을 위한 법안과 적극적인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실현계획이 필요한 때다.

전국한우협회는 올해를 한우기본법 제정을 위한 원년으로 삼았다. 한우기본법 제정, 어디까지 왔고 앞으로 무엇이 필요한지 한우기본법 제정의 모든 것을 알아본다.



송아지생산안정제,
비육우경영안정제, 공익직불제
한우 농가 경영안정 프로그램 다수 포함

한우협회 정책 추진의 모든 것 한우농가 숙원...한우기본법 제정에 '혼신'

김삼주 회장은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해 한우협회가 추진하는 모든 정책은 한우산업 기본법에 담았다고 주창해왔다.

이 법의 통과를 한우농가의 숙원 사안이자 한우산업의 미래를 담보하는 핵심 법안이기 때문에 협회는 2023년 연내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김삼주 회장은 이미 회장 선출 전 핵심 공약 사항으로 한우기본법 제정을 내세운 바 있다.

김 회장은 “산업이 전문화되고 규모화 됨에 따라 축종별 별도의 법안이 마련돼 품목에 맞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한우산업 기본법 제정의 기본 취지는 한우산업의 발전과 전환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한우의 수급 조절, 도축·출하 장려금 지원, 경영개선자금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한우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우인들의 숙원 사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 마련이 절실하다고 느껴 공약에도 담은 사안”이라며 “지난해 7월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김제시·부안군)을 통해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충

남 예산·홍성군)이 한우산업 기본법을 발의함으로써 마침내 여야에서 한우산업을 보호할 법적기반 마련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김삼주 회장은 “한우산업 기본법이 제정된다면 한우산업이 당면한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것”이라며 “임기 내 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이 법에는 송아지생산안정제, 비육우경영안정제, 공익직불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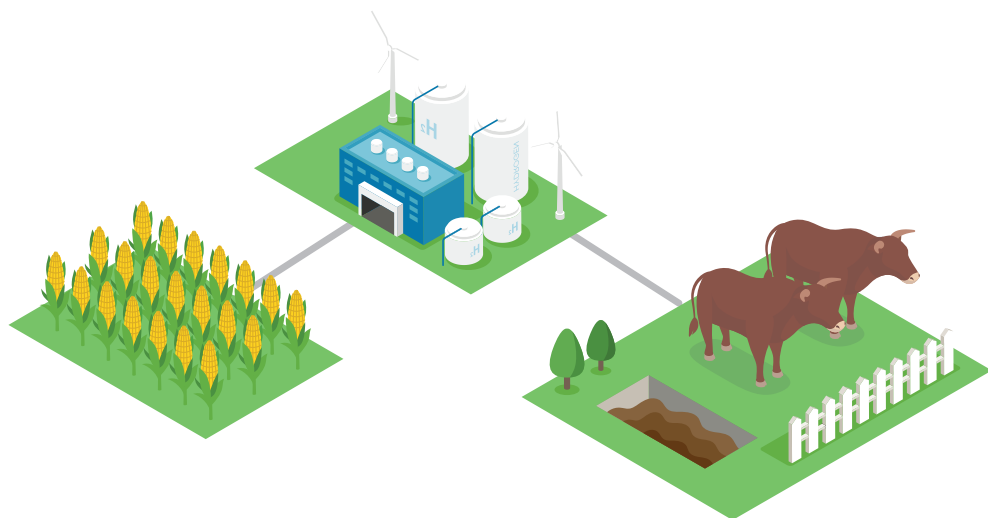
등 한우 농가의 경영 안전 프로그램들이 다수 포함돼 있고 경축순환 활성화 방안, 한우산업발전협의회 설치, 수급에 따른 장려금 지급, 사료안정자금 설치 등 다양한 농가 숙원 사업이 포진돼 있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한우산업에 큰 이정표가 되는 만큼 김 회장은 물밑 협상은 물론 전국 한우 농가들의 농심을 모아 법 통과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뜻을 표명한 것이다.

이원택 의원, 2022년 7월 법안대표 발의 탄소중립 실현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 목적

지난 대선 당시 전국한우협회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모두와 '한우산업 기본법의 조속한 법제화'를 위한 정책협약을 맺은 바 있다. 지난해 7월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김제·부안)은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탄소중립 시대 전환을 위해 별도로 법률을 지정해 한우산업의 발전을 지원해야 한다고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우산업발전법(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환을 위한 지원법)은 탄소중립 실현 과정과 환경변화에 따른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농식품부장관은 5년마다 한우산업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한우산업발전협의회 설치 △한우농가 탄소저감을 위한 경축순환 농업 전환 △한우수급정책 수립 △한우 품질개선 및 유통활성화를 위한 조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원택 의원



‘한우산업기본법’ 제정 필요성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우산업이 가진 다양한 공익적 기능과 산업적 가치에 대한 재조명 - 이를 제도적·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정책 법제화 요구 증대 • 산업이 전문화되고 규모화됨에 따라 축종별 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의 법안이 마련돼 품목에 맞는 대책과 규제 마련 필요(기업육성, 질병, 수정란이식) • 한우산업의 발전 및 지원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한우의 수급 조절, 도축·출하장려금 지원, 경영개선자금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 |
|---|--|

법안 주요내용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 및 한우 가격의 안정적 유도 • 5년마다 한우산업 발전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 한우 수급 상황을 고려한 적정 사육두수 규모 관리 위해 한우산업발전협의회 설치 • 수급 조절을 위해 일정 기간 사육한 한우를 도축 및 출하하는 경우 장려금 지급 • 한우산업 경영으로 인한 소득금액 및 부채 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한우 농가에 대하여 경영개선을 위한 자금 지원 • 한우의 품질개선 및 유통활성화를 위해 한우의 거래 규격 및 품질표시의 보급, 한우 유통구조의 개선 및 다양화 조치 강구 • 한우의 수출 기반 조성을 위해 해외 개척, 수출 검역 및 판매전략 등에 대한 정보제공 등의 사업을 추진 |
|---|--|

농축산업 품목별 경쟁력 위해 개별법 절실 전문가들, 한우산업기본법 필요성 ‘한목소리’

지난해 3분기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 가격을 유지하던 한우가격은 4분기에 들어서면서 하락세가 뚜렷해졌다. 특히 한우 사육마릿수 증가, 금리 인상과 경기둔화로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수요가 급감해 한우도 매가격 하락세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한우사육마릿수는 올해 358만 마리를 넘기며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올해를 기점으로 다소 줄어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이미 지난해 350만 마리를 넘기며 전년보다 3% 가량 늘어난 한우사육마릿수는 평년인 313만 마리와 비교하면 13% 가량 늘어나며 공급량 초과를 예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도축마릿수는 69만9,000마리로 예상





되며 전년과 비교하면 7.5% 가량 많은 수치로 평년보다는 11.1%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2월 22일 기준 한우 평균 도매가격은 kg당 1만6,014원으로 지난해 평균 2만1,224원과 비교하면 25% 가량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우가격 하락과 사료가격과 조사료, 인건비 등 생산비 증가로 소를 팔아도 생산비에 못 미치는 상황이 도래하면서 한우농가들의 경영악화는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상황에서 한우업계의 한 관

계자는 “금리인상과 집값 하락 등으로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가 더욱 위축되면 한우소비가 더욱 줄어들 수도 있다”며 “올해 한우 사육마릿수는 지난해보다 늘어난 역대 최고치가 예상되는 만큼 한우가격 폭락을 대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한우산업기본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정승헌 한우정책연구소장은 “정부의 한우산업 지원책은 일시적이고 연속성이 없어 실질 작동되지 않는 면이 있다”며 “송아지생산안정제 등도 실제로 작동하지 않는 등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고 말했다. 정 소장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우 관련 제도를 법으로 명문화 시켜야 한다”며 “한우산업기본법을 빨리 만들어야 한우산업이 안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거 1998년과 2011년의 한우값 파동과 같은 한우산업의 위기가 주기적으로 재발하는 한우가격폭락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법적 제도화가 급선무라는 지적도 힘을 얻고 있다.

전국한우협회 김영원 정책지도국장은 “수년 전부터 미경산우 비육 지원사업을 등 선제적 수급조절을 위해 생산자가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충실히 했음에도 이같은 사태를 맞이했다”며 “한우가격 폭락 문제가 이번에 해결된다고 해도 한우산업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한우산업기본법’을 제정해 법 테두리 안에서 각종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한우산업기본법안에 농가 경영안정 대책, 한우 가격 대책을 포함해 수급정책의 법적 안정화를 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강원대학교 이병오 농업자원경제학과 명예교수도 “농가가 안심하고 한우를 키우려면 관련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등 학계 전문가들도 한우산업기본법의 제정을 찬성하고 있다.

홍문표 의원, ‘한우산업기본법’ 대표발의 입법화 본격 추진…실질적 지원 기반 조성

국회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홍문표 국회의원(충남 예산·홍성군)은 지난해 12월 21일 한우산업 발전과 지원 기반 조성을 위한 ‘한우산업기본법’ 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홍문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우산업기본법 제정안은 대한민국 한우의 유전자원 가치를 보전하고 한우수급조절, 도축·출하 장려금 및 경영개선 자금지원 등 한우산업의 공익적 역할 증대와 한우농가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담았다.

발의된 한우산업기본법은 지난해 11월 25일 홍문표 의원과 전국한우협회 공동 주최로 전국 최대 축산단지인 홍성군 현장토론회에서 600여명의 한우농가들의 도출된 의견을 담아 마련됐다.

홍문표 국회의원은 “급변하는 축산환경에 따른 한우산업 생존전략 및 한우농가 경영안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절실함으로 입법화를 추진하게 됐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홍문표 의원은 또 “제정안이 통과된다면 한우 가격의 안정적 유지를 통한 위기 극복과 동시에 한우 산업의 시장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 생산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우산업기본법 제정안에는 국민의힘 박덕흠, 성일종, 엄태영, 윤재갑, 윤주경, 윤한홍, 이 용, 이채익, 최춘식, 한무경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홍문표 의원

경축순환 활성화 방안, 한우산업발전협의회 설치
수급 장려금, 사료안정기금 등 숙원사업 포진



한우산업 기본법 제정 추이

2014.8

한우산업 법제화 요구 증대

- 한우산업이 가진 다양한 공익적 기능과 산업적 가치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하며, 이를 제도적,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정책법제화에 대한 요구 증대
- 과거 19대 국회에서 ‘한우산업발전법안’이 발의 (2014.8)돼 긍정적으로 논의된 바 있으나, 회기만료로 자동폐기(2016.5)됨



2015년 9월 3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우산업발전법안 마련과 대기업 축산 진출의 문제’ 토론회. 이날 토론회에서 송이지생산안전제의 개선·보완 방안 등을 포함하는 한우산업발전법안 입법의 필요성이 재조명되며 공감대를 형성했다.

2022.2.11

지자체 한우산업 관련 육성 및 지원 조례의 모법(母法) 제정으로 중앙·지방정부간 역할 분담

- 지자체 한우조례 제정 현황 : 광역지자체 6개, 기초 지자체 15개
- 지자체 한우산업 조례의 법률적 기준 및 재정지원 필요



2022.2.11

전국한우협회,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양당과 ‘한우산업 기본법의 조속한 법제화’ 위한 정책협약

- 전국한우협회-더불어민주당 한우정책협약식 (2022.2.11)
(전국한우협회) 김삼주 회장 - (더불어민주) 이개호 농어민위원장·김두관 의원
- 더불어민주당, “당차원 한우산업전환법 통과 총력”
- 탄소중립 등 환경변화에 따른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 한우가격 및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계획 수립 등 한우산업전환법의 신속한 제정을 주요 골자로 함



2022.2.14

전국한우협회, 신정부와 한우정책 협약 체결

- (전국한우협회) 김삼주 회장 - (국민의 힘) 조경태 직능총괄본부장
- 한우산업안정(전환)법의 신속한 제정 노력
- 탄소중립 등 환경변화에 따른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
- 한우가격 및 농가경영 안정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등



전국한우협회 김삼주 회장, 김문흠 부회장, 한기웅 부산경남도지회장과 국민의힘 조경태 직능총괄본부장, 송석준 부분부장, 장세일 전국농림축산지원단장 등 관계자들이 협약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7.12

이원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김제·부안) ‘한우산업발전법’ 대표 발의

- 이원택 의원 ‘한우산업발전법(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환을 위한 지원법)’ 대표 발의
- 탄소중립 실현 과정과 환경변화에 따른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함.
- 농식품부장관은 5년마다 한우산업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한우산업발전협의회 설치 △한우농가 탄소저감을 위한 경축순환 농업 전환 △한우수급 정책 수립 △한우 품질개선 및 유통활성화를 위한 조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2022.11.25

전국한우협회-홍문표 국회의원, 현장 정책 토론회 개최



- 한우산업 안정화를 위한 현장 정책 토론회 개최 (2022.11.25. 홍성군 홍주문화회관)
- 충남도 내 한우농가 600여 명이 참석.
- 사료값 폭등대책, 소값 안정을 위한 소비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열띤 토론
- 홍문표 의원, 정책 토론회에서 한우기본법 발의를 위한 동력 얻어

2022.12.21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 ‘한우산업기본법 제정안’ 대표발의

- 홍문표 국회의원, 한우산업 발전 및 지원 기반 조성을 위한 ‘한우산업기본법’ 제정법률안 대표발의 (2022.12.21)
- 한우산업의 공익적 역할 증대와 한우농가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주요 골자 함.
- 홍문표 의원, 제정안의 조속한 통과 ‘약속’
- 국민의힘 박덕흠, 성일종, 염태영, 윤재갑, 윤주경, 윤한홍, 이 용, 이재익, 최춘식, 한무경 의원 공동 발의 참여

이달의
한우인

‘한우산업기본법’ 제정법률안 대표발의 홍문표 국회의원



국회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홍문표 국회의원(충남 예산·홍성군)은 지난 연말 한우산업 발전 및 지원 기반 조성을 위한 ‘한우산업기본법’ 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홍문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우산업기본법 제정안은 대한민국 한우의 유전자원 가치를 보전하고 한우수급조절, 도축·출하 장려금 및 경영개선 자금지원 등 한우산업의 공익적 역할 증대와 한우농가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

이에 앞서 홍문표 의원은 지난해 11월 25일 전국한우협회 공동 주최로 전국 최대 축산단지

인 홍성군에서 현장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대한민국 축산1번지 홍성에서 개최한 이유에 대해 생생한 축산인들의 진솔한 의견을 듣고 입법화하고 국가 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해 사상 처음 국회가 아닌 현장에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힌 홍 의원에게 박수가 쏟아졌다. 600여 명의 한우농가들이 현장에서 낸 의견을 바탕으로 한우산업기본법 제정의 발판을 마련한 홍 의원은 한우산업기본법 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며 한우인들의 염원을 실현시키고 있다. 아직 갈길이 멀다는 홍 의원을 한우인들의 감사함과 염원을 담아 ‘이달의 한우인’으로 선정한다.

Q 한우산업에 대한 의원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대한민국 축산업은 그동안 수많은 어려움에도 우리 농업과 농촌의 핵심 선진 축산업으로 자리매김 했습니다.

특히 한우는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원이자 어느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맛을 가지고 있는 세계 유일의 유전자원으로 축산업 생산액의 28%를 차지하며 대한민국 먹거리를 대표하는 산업입니다.

한우산업은 우리 농촌과 농업을 떠받치는 근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생산액이 6조9,000억 원에 달하며 이는 2021년 농림업 생산액 61조 5,000억 원 중 단일 품목으로는 미국 9조 5,000억 원, 돼지 8조5,000억 원에 이어 세 번째 규모로 대한민국 농업을 든든하게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Q 지금의 한우산업을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 축산업과 한우산업은 안타깝게도 수입산 소고기 증가, 생산비 증가 등 큰 위기와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식품 수출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소고기 수입량은 50만4,832톤으로 사상 첫 50만 톤을 돌파했으며 안심 수입량은 전년대비 87.4% 증가하는 등 경기 침체로 소비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 속에서 시장개방, 관세 철폐 등의 영향으로 한우농가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최근 발생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



한우가격 안정적 유지
한우산업 위기 극복

시장경쟁력 강화
안정적 생산기반 조성 기대

태, 코로나19 장기화에 빈번한 이상기후, 환율 상승 등이 맞물려 국제 곡물가가 요동치며 이는 나비효과처럼 원자재 비중이 큰 사료업계를 위기에 빠뜨렸고 주요 단백질 공급원이자 식량 주권 산업인 축산업 자체를 흔들며 국민 먹거리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배합사료와 조사료 등을 포함한 사료비는 송아지 생산비의 46.1%, 비육우 생산비의 35.1%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큰 상황에서 배합사료의 가격은 2020년대비 50% 급등하는 등 사료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며 농가들의 경영은 악화일로에 있습니다.”



Q 한우산업의 경쟁력, 어떻게 보십니까.

“지속적인 한우 개량과 사양관리 개선 등의 노력으로 1등급 출현율이 평균 90%에 달하는 한우산업은 지난해 10월 제25회 ‘전국한우능력 평가대회’에서 대통령상을 받은 한우가 역대 최고가격인 8,177만 원에 낙찰되며 산업의 발전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충남의 한우농가가 국무총리상과 함께 전국 축산물품질평가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는 등 우리 충남의 한우농가들의 우수성도 더불어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들은 그만큼 질적인 측면에서도 우리 한우산업의 경쟁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때문에 우리 한우산업을 일군 한우농가와 관계기관 여러분께 늘 존경과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Q 말씀 중 있었지만 의원님의 지역구인 홍성군은 한우 1번지로도 유명합니다.

“충남 홍성군은 1,800여 농가에서 6만 마리 이상의 한우를 사육하는 전국 제일의 축산군으로 군민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축산, 친환경 안정 축산물 생산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홍성한우 브랜드 명품화’를 통해 홍성한우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축산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한우산업을 둘러싼 대내외적 위기로 농가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어 축산인들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이를 정책으로 발전시켜 지속가능한 한우산업 발전의 기틀을 다지고자 하는 마음에 지난해 11월 25일 충남 홍성군에 위치한 ‘홍주문화회관’에서 ‘한우산업안정화를 위한 현장 정책 토론회-축산문제 현장에서 정책으로’를 개최했습니다.

사실 처음으로 국회가 아닌 현장에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많은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었고 현장 농가들의 생생한 어려움을 들었습니다. 격변하는 축산환경에 따른 한우산업의 생존전략과 한우농가 경영안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시작한 그날의 토론회는 한우농가의 경영악화를 막기 위한 절실함이 더해진 것이었습니다.”



한우산업을 우리나라 대표산업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Q 해당 정책토론회에서 한우기본법 발의를 위한 동력을 얻었다고 들었습니다.

“사료 가격 폭등 문제와 송아지·한우 가격 하락 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한우산업을 보호하고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는 한우산업기본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홍성에서 열린 현장 정책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을 보며 한우산업기본법을 만들어 한우산업을 우리나라 대표산업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한우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구체적인 대책 수립을 위해 많은 분들이 모여준 정책토론회는 전문가들의 다양한 목소리와 지혜를 모아 위기에 처한 한우농가를 도울

수 있는 의미있는 자리가 됐습니다. 또한 이날의 토론회를 중심으로 한우산업기본법 제정의 틀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Q 한우산업기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하셨습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급변하는 축산환경에 따른 한우산업 생존전략 및 한우농가 경영안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절실함으로 입법화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제정안이 통과된다면 한우 가격의 안정적 유지를 통한 위기 극복과 동시에 한우 산업의 시장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 생산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대한한우 사료 농가를 찾아서

“일희일비는 금물” 45년 사육 노하우 ‘뚝심’

희관농장
유희관 대표

29살에 한우사육을 시작한 희관농장 유희관 대표는 한우 60두를 키우는 한우농가다. 45년 간 축산업에 종사하면서 묵묵히 한우만 키웠다. 수차례 한우파동을 겪기도 하고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등 각종 경제위기에서도 살아남았다. 축산뿐만 아니라 각종 농사 경험도 있는 그는 ‘농민의 땀’에 대한 가치를 믿는다. 그는 “우리 땅에서 자란 먹거리는 우리가 지켜야 한다”면서 “농민의 생존 문제는 우리 먹거리를 생산하는 공간을 지키는 문제와 직결된다”고 말한다. 최근 각종 원자재값 상승 등 채산성 악화를 겪고 있는 한우 산업에 협회 전용사료 ‘대한한우’는 한줄기 빛과 같다는 희관농장 유희관 대표. 그의 한우인생을 들어봤다.

글·사진_박현욱 기자 (농축유통신문)



위기 도래 시 농가 '협력·연대'가 중요

유 대표는 자신이 생산한 한우 일부를 고산미소 판매장에 판다. 고산미소란 전라북도 완주의 한우 브랜드다. 수백 명의 농가들이 머리를 맞대 고산미소 한우 판매장을 만들었고, 여기에 소속된 농가들이 한우를 납품하면서 판매장을 운영, 소비자와의 스킨십을 넓혀나간다. 수익보다는 한우 농가들의 판로 확보에 방점을 찍으면서 축산 농가들의 출하 플랫폼으로 각광받고 있다. 한우농가들의 연대와 협력이 빛을 발한 케이스다.

“고산미소 판매장에는 양질의 한우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합니다. 이익을 최소화하고 싼 가격에 한우를 선보이게 하기 위함입니다. 정육점에서 구매하기 위해 찾아올 정도죠. 제가 이곳에 주목한 이유는 농가들의 연대와 협력으로 농가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격이 하락하는 등 어려운 시기가 도래하면 판매장에서는 최대한 농가들의 이익을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농가 안전장치 협회 사료 만족도 'UP'

유 대표는 한우협회에서 론칭한 사료를 한우 산업의 대표적 안전장치 중 하나로 꼽는다. 민간 사료가격보다 저렴한 데다 품질까지 좋아서다. 한우협회 사료는 사료값 책정방식의 투명성과 농가들에게 최대 마진을 보장해준다는 점이 장점으로 평가받는다. 사료 론칭 후 협회 전용 사료를 급이한 농가들의 데이터가 하나 둘 추출되면서 품질에 대한 우려는 씻은 지 오래다. 농가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면서 협



우량 한우 생산에 오롯이 ‘집중’
장기 사육 비결

농가간 연대와 협력 강조
‘한우협회 사료’ 큰 힘





회 사료를 찾는 농가 수요는 폭발적이다. 지난해 말부터 경제 상황이 악화되자 한우협 사료에 대한 관심과 호응도가 더욱 높아졌다는 게 유 대표의 설명이다.

“제가 좀처럼 사육 방식을 바꾸지 않지만 한우협회 사료로 바꾸고 나서는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수십 년간 민간 사료만 고집했는데 협회 사료를 바꾸고 나서 등급 출현율이 더욱 좋아졌죠. 오히려 어떻게 소를 키웠느냐는 반문을 들을 정도니까요.”

한우협회 전용사료는 귀농인들에게 특히 인기가 높다. 별다른 사육 노하우 없이도 입질 좋고 잘 크는 사료로 알려져 있어서다. “사료에 대한 고민이 많은 농가에게 추천한다”는 유 대표는 ‘믿고 쓸 수 있는 사료’라고 꼭 집어 말한다.

“한우협회가 한우산업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축산 농가 경영에 이만큼 도움을 준 사업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가격이 저렴해 직접적인 혜택도 있지만 민간 사료값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는 견제 장치도 충실히 해내고 있으니까요. 농가들이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한우산업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다양한 농사 경험한 진심 농사꾼

자신을 농사꾼이라고 소개한 유희관 대표는 수박 농사를 짓던 농민이다. 수박 농사로 지역에서 상까지 거머쥔 경력이 있을 정도로 농사에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잘나가던 수박 농사를 돌연 한우 사육으로 바꾼 이유는 한우산



업이 ‘농업의 미래’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국내 농업을 이끌어가는 두 축은 쌀과 한우죠. 한우는 우리나라 농업의 국가대표 산업 아니겠습니까. 국내 노지 농사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쉽지 않습니다. 축산업은 농가의 노력이 뒷받침되면 예측 가능성이 있죠. 특히 당시에는 과학적 영농 관리의 중요성이 한참 부각되던 시절이었고 농업의 미래를 고민하던 차에 한우를 주목하게 됐고, 한우 사육을 주력 품목으로 바꿨습니다.”

한우농가 투기적 심리 금물 '변화보다 안정'

오랜 농사 경험은 그에게 하나의 시사점을 던져줬다. 일희일비하지 않는 독심이다. 10년마다 반복되는 한우 사이클에 매몰되지 않고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대응해야 한다는 뜻이다.

“최근 한우농가 성향을 보면 가격 등락폭에 굉장히 민감해 합니다. 가격이 떨어진다 싶으면 우르르 몰려 출하하고 오른다 싶으면 출하지 않고 가격이 더 오를길 기다리기도 하죠. 입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격이 좋으면 빚까지 감내해가며 입식에 열을 올리기도 합니다. 시장 상황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것도 좋으나 투

기적 마인드를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정된 한우 산업은 농가 스스로 독심 있는 사육 환경을 만들어 나갈 때 조성될 수 있습니다.”

유 대표는 웬만해서는 사육 농장의 볼륨을 키우는 등 급격한 변화를 주지는 않는다. 출하 시에도 시장 상황을 주시하기보다 자신이 출하하는 한우의 도체중이나 건강 상태 등을 체크해 최적의 시기를 고민한다.

오로지 한우 품질에만 집중하는 그의 사육 스타일은 그만의 경영전략이 됐다. 오랫동안 한우산업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원동력도 오롯이 한우에만 집중해 가능했다는 게 그의 귀띔이다.

“많은 농가들이 사육 규모를 급격하게 늘리지 않는다면 한우 산업도 안정될 수 있습니다. 농가들끼리 서로 죽이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수급의 문제는 농민들의 투기적 심리에서 비롯됩니다. 한우 사육두수가 급격하게 늘어난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일희일비하지 않고 좋은 한우를 생산한다는 마음으로 자신의 농장에 맞는 규모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건강한 동물, 행복한 인류 기여’
세계로 기지개 켜는 한국 동물약품의 저력

한국동물약품협회



‘건강한 동물, 행복한 인류’를 위해 노력해 온 한국동물약품협회는 동물약품 산업의 발전과 동물복지에 이바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71년 설립 됐다. 최근 반려동물 산업 규모가 커지면서 반려동물 약사업무와 역할이 더욱 커졌지만, 산업동물 또한 축종별 수의학을 바탕으로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다.

이미지제공: 한국동물약품협회

정병곤 회장님 안녕하세요. 간단한 협회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우농가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동물약품협회장 정병곤입니다.

동물약품협회는 동물용의약품 관련 법규와 제도 개선, 그리고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구, 수출 등 대한민국 동물약품의 발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동물용의약품등 품목신고, 주문용 배합사료 첨가제 제조신고서 접수관리, 표준통관예정보고 접수관리, 동물용의약품등 통계 생산과 관리 등 정부의 위탁업무를 수행하기도 합니다.



동물약품협회의 핵심적인 업무를 꼽자면.

동물약품협회에서 중추적인 조직중 하나가 사료에 대한 품질 및 검정업무를 담당을 담당하는 한국동물약품기술연구원입니다.

사료검정을 위해 등록성분 검사와 유해물질, 유해미생물, 동물성유래단백질 등을 검사하고 동물용의약품등 수거 검사 민간위탁 사업과 함께 가축방역시설 소독약품 사용 실태 조사 등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조달청 등록용 공인시험기관 성적서 발행도 하고 있고요.

동물용의약품·의약품 등의 주성분 확인과 함량시험 등 품질검사뿐만 아니라, 방역약품의 안정적인 수급을 도모하고 회원사와축산농가에 대한 지속적인 질병방역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동물용의약품 수입시 BSE 관련 증명서를 확인해 해외로부터 가축전염병 국내 유입을 방지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동물약품시장의 규모와 국제 경쟁력은 어떤가요?

한국동물약품 수출은 이미 2015년 수출 2억 불, 2019년 수출 3억불을 달성하는 수출효자 품목입니다. 동남아 시장 뿐 아니라 2021년도 부터는 EU 시장으로의 판매가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출시장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해외에서 열리는 축산박람회에 한국관으로 특별관을 설치하고 대한민국 동물약품업체들의 부스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내 동물약품업체들의 해외시장 약진을 돕기 위해 해외 수출 마케팅 지원과 바이어 DB 구축에도 애쓰고 있습니다.



동물용의약품 제도개선 정부위탁 업무 수행

‘한류열풍’ 한국동물약품 수출 비약적 발전



한우와 관련된 에피소드가 있다면.

저는 회장 취임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검역정책과장으로 홍콩과 한우 수출을 담당했던 적이 있어서 한우산업에 대해 굉장히 내적 친밀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당시 홍콩수출을 위해 홍콩을 방문했는데, 한우를 잘 알지 못해서 엄청 경계하고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당시 공직자였지만 마치 한우협회 직원처럼 홍콩 검역당국을 대상으로 한우의 안전성, 한우의 품질 등을 이력추적제나 안전관리·질병관리 시스템을 설명하고 우수성을 검증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일본 와규의 시장진출이 한우보다 훨씬 빨랐지만 홍콩 현지에서 블라인드 테스트 했을 때 한우에 더 많은 손이 올라왔던 감격의 순간도 떠오르고요. 제가 한우 세계화의 시작을 함께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동물약품기술연구원, 품질관리 사료검정 업무

가축전염병 국내유입 방지 질병 방역 홍보

한우농가 및 한우업계에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세계적인 미슐랭 식당에 한식메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한우를 활용한 메뉴는 찾기 어렵더라고요. 한우가 세계로 뻗어나가 미슐랭의 한식 메뉴로 쓰이면 진정한 한식의 맛을 느끼는 세계인들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동물약품협회는 가축전염병 예방의 첨병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방역과 국경검역에 협조함은 물론이고 동물용의약품 통관예정보고시 BSE(소해면상뇌증) 증명서를 확인하여 한우농가분들께서 안전하게 사육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한우가 세계적인 산업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전환의 시대 한우산업의 길을 묻다

2022 한우산업발전간담회

‘한우산업 탈출구 찾기’ 열띤 논의

2023년도 한우사육마릿수가 역대 최대 수준이 전망되는 가운데 한우산업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전국한우협회와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3일과 14일 양일간 경북 문경 STX 리조트에서 ‘2022 한우산업발전간담회’를 개최하고 ‘대전환의 시대, 한우산업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한우산업의 미래와 전망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의 자리를 마련했다.

건강한 동물, 행복한 인류,
한국동물약품협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한국동물약품협회
Korea Animal Health Products Association





전국의 한우농가 지도자들을 비롯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축협 등 한우업계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은 한 자리에 모여 위기를 맞은 한우산업의 탈출구를 찾기 위한 열띤 논의를 펼쳤다. 이날 간담회는 △2023년 한우산업 전망 및 안정화 방안 △한우산업정책현황 및 개선방안 지자체와 한우협회의 △한우산업 정책과 추진과제 △소는 데이터러를 만들고 데이터는 소를 키운다 등 한우산업에 대한 전망과 정책, 추진과제는 물론 한우산업의 미래를 고민할 수 있는 데이터 관련 주제로 구성됐다.

전국한우협회 김삼주 회장은 “한우농가들의 수취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있지만 한우 소비자가격은 유지되고 있다”며 “한우도매가격이 떨어졌음에도 다른 자재 가격이 올라 한우가격을 못 올린다는 시장의 말에 한우농가들의 고통만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회장은 “한우농가가 언제부터 희생양이 되었는지 지도자들이 함께 고민해야 하는 때”라며 “지도자 한분 한분의 고민과 역할이 매우 중요할 때로 함께 힘을 모아 이 난관을 극복하자”고 인사말을 건넸다.

한우가격 폭락으로 인한 한우산업의 위기가 예고되고 있는 지금, 그야말로 대전환의 시기에 한우산업의 길을 묻는 이날 간담회의 주제발표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한우산업의 발전방향을 고민해 본다.

사육마릿수역대 최대...자율적수급 조절 필요

사육규모별 농가정책차별화 필요성 주장

첫 번째 발표주자로 나선 한우정책연구소 정승헌 소장은 ‘2023년 한우산업 전망 및 안정화 방안’을 통해 2023년도 한우 사육 마릿수가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자율적 수급 조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소장은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한 한우사육마릿수는 2023년 12월 358만 마리로 전망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며 “도매가격은 출하 대기 물량이 많아 도축 마릿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결국 점진적 가격하락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 중장기 경영 안정화를 위해 송아지 입식을 자제하고 저능력 암소의 선제적 도태 등 자율적 수급 조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정 소장은 한우 사육규모별 농가



정책 차별화의 필요성을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정 소장은 “20마리 미만을 사육하는 50%의 한우 농가에 대한 연착륙 정책이 필요하다”며 “한우농가 숫자가 줄어들면 안정적인 발전 아닌 기형적인 발전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규모 있는 농가들은 소규모 농가들과 함께 가는 상생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우 농가간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지속가능성을 고민할 것을 주문했다. 정 소장은 “1** 등급을 많이 내는 한우농가만 살아남는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한우산업이 붕괴될 것”이라며 “현재와 미래의 가치를 공유시키는 지속가능성을 한우지도자들이 고민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정 소장은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에 대해서도 갈 수 밖에 없는 길이라고 강조하며 한우농가들이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스스로 공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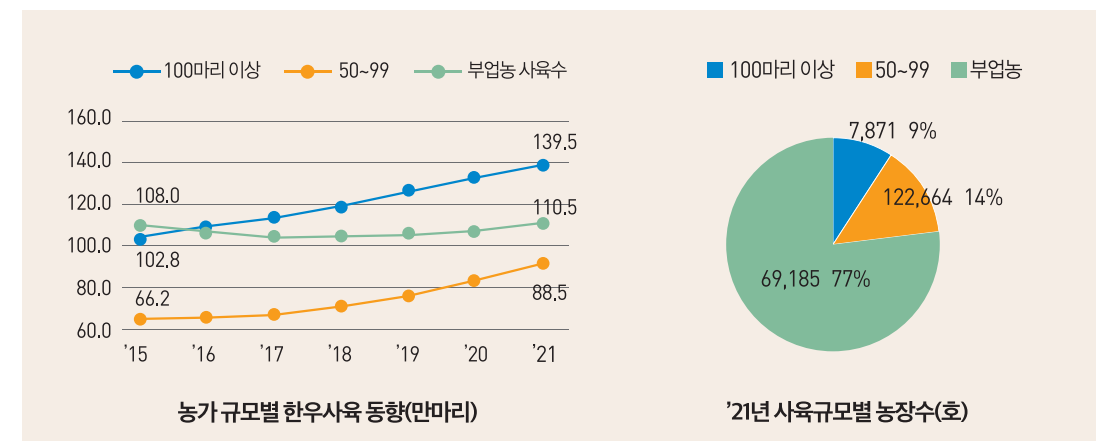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소장은 “탄소중립을 실천하지 않으면 수출도 어려울 것이며 가치소비를 추구하는 최근의 소비자들을 의식해야 한다”며 “한우산업에 대한 공격에 대응해 농가 스스로가 답변할 수 있도록 공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우산업 정책, 양적·질적 성장병행 추진

경영안정화·생산성 향상 정책...한우 생산구조 전환

‘한우산업 정책현황 및 개선방향’을 발표한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김정수 축산경영과 사무관은 현재 한우관련 주요제도의 문제점을 짚으며 한우산업 발전 기본방향을 제시해 참석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김 사무관은 “선제적 수급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소 사육방식을 개선하는 한편 경영안정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각종 정책으로 한우 생산구조를 전환할 것”이라며 “브랜드 경영체의 규모화와 광역화를 가속해 한우고기 유통 차별화로 유통체계를 개선하고 소비자 맞춤형 제품 생산과 한우 대중육 시장 육성 등 다양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 58p <이슈분석> 2023 농림축산식품부 한우정책 전격해부> 참고



농가-정부 열띤 공방

최근 한우산업의 발전을 위해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한우산업 기본법 제정과 한우수급관리를 위한 선제적 대책에 대해서는 농가와 정부간 이견이 엇갈리며 논쟁이 이어졌다.



“농민 보호하는 정책이 한우산업기본법 제정”

한우산업기본법 제정과 관련해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이근수 전 위원장은 “한우를 세계 최고의 품질로 만들었는데 산업 종사자인 한우농가들은 소득이 안돼 망하는 상황으로 소득보장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가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에 의해 한우산업이 보호받지 않으면 ‘언발에 오줌누기’ 땀뻥식 정책으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3번의 한우파동을 겪고 시장개방이 되면서 한우농가들이 절반 이상 줄어들은 현실을 직시하고 한우산업기본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에 김정수 사무관은 법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축산법, 축산물이력제법 등 기본적으로 한우를 기반을 하는 법이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별도의 법이 만들 이유가 있을지 합리적 의문이 필요할 뿐 한우기본법 제정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 사무관은 “한우기본법 제정과 관련해 내용을 제안해준다면 필요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하다면 당연히 논의를 통해 입법할 것”이라며 “법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전 위원장은 “농민 보호책을 만들어야 하고 그것이 바로 한우산업기본법 제정”이라고 뜻을 밝혔다.

“한우산업 시장에 맡겨? 천박한 생각”

김 사무관은 일본의 화우 사례를 예로 들며 마릿수를 계속 유지하고 암소도 45%씩 일정하게 도축하며 미경산우를 번식이 아닌 고기소로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사무관은 “지난해 한우가격이 매우 좋았을 때 정액판매량

과 1세 한우 마릿수, 암소마릿수가 급격히 증가했다”며 “일본은 아무리 소값이 좋아도 적정 숫자를 유지하는 것을 보면 우리 한우농가들도 사육마릿수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이에 농가들은 정부가 농가들에게만 수급조절을 맡기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반발했다. 이근수 전 위원장은 “농가 스스로 수급조절을 하라는 말 같은데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니냐”며 “한우수급조절을 시장에만 맡기는 것은 너무 천박한 생각”이라고 발언 수위를 높였다.

전국한우협회 김홍길 전 회장도 “송아지 수급 조절을 위해 농가들에게 송아지를 낳지 말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은가”라며 “미경산우 비육지원 사업을 하자고 했지만 정부와 농협이 모두 반대해 송아지 수급조절 시기를 놓친 만큼 지금이라도 미경산우 비육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우가격 안정위해 한우산업 제도개선 필요 소비촉진-사료-조사료 생산비 절감예산 증액을

전국한우협회 김영원 정책지도국장은 ‘한우가격 안정을 위한 농가-정부 역할 및 대책’ 발표를 통해 한우가격 하락 위기 속의 농가와 정부에 역할을 각각 짚어 눈길을 끌었다.

김 국장은 “2023년도 한우가격 하락에 대비해 농가에서는 수급조절을 위한 지속적 미경산 비육사업을 추진하고 가격하락에 따른 추매를 자제하는 동시에 분산출하를 유도해야 한다”며 “조사료 재배확대와 수거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2023년도 한우분야 예산 증액 관철을 위한 농식품부의 적극적 노력을 당부했다. 한우분야 소비촉진을 위한 예산과 제도개선은 물론 사료와 조사료 등 생산비 절감을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근

가격이 올라 문제가 되고 있는 조사료에 대해서는 생산 활성화를 위해 부처 간 협의를 통한 규제 완화를 제안하는 한편 사료와 조사료 가격 안정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김 국장은 “가장 필요한 것은 한우산업 제도 개선으로 수급조절과 가격 안정을 위한 미경산우 사업 활성화와 송아지 생산안정제 개선과 시행이 필요하다”며 “한우사료 조단백을 지대에 표기해 사료값 인상에 따른 저하된 신뢰성을 회복하고 소규모농가의 축산업 등록·허가 간소화와 예산 지원을 건의한다”고 강조했다.

2023 한우산업 이것만은 꼭!!



1. 한우분야 예산증액 관철위해 농식품부 적극적 노력 필요

- 한우분야 소비촉진 위한 국비 예산 증액과 제도개선 필요
- 사료 및 조사료 등 생산비절감을 위한 예산 증액

2. 조사료 생산 활성화 위해 부처간 협의 통한 규제 완화

- 군 유희지, 하천 및 댐 내 유희지 조사료 재배 협조
- 충남 6개 시군 미분양 간척지를 중장기 조사료포로 활용
- 생활용수 댐 내 유희지 활용
- 대통령실·총리실 조사료 활성화 T/F 구성

3. 사료 및 조사료 가격안정을 위한 정부 역할

- 사료 및 조사료의 적정가격 점검
- 조사료 활성화를 위한 생산자단체에 조사료장비 지원확대

4. 한우산업 제도개선

-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위한 미경산우 사업 활성화 (미경산우 표시제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
- 송아지생산안정제 개선 및 시행
- 한우사료 조단백 지대 표기
- 소규모(99㎡ 이하) 축산업 등록·허가 간소화-예산 지원 건의

5. 정육점형 식당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 식당과 분리된 정육판매점 비과세 제도 유지 건의



사상최대의 한우사육마릿수와 도축마릿수가 예상되는 올해, 한우가격 폭락을 대비한 정부의 대책이 무엇보다 절실한 때다. 전국한우협회는 지난 연말 정부와 농협에 소값 안정을 위한 생존 대책을 즉각 실천할 것을 요구했다. 한우산업의 위기를 방관하는 정부 측 태도에 불만을 표하며 죽음으로 내몰리는 한우농가들을 위한 생존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전국한우협회가 정부와 농협에 소값 안정을 위해 5개 항목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10년 전 한우파동을 방불케 하는 최대위기가 닥칠 것이라고 예견된 올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어떤 한우정책을 준비하고 있을까.

김정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사무관이 지난 연말 한우산업발전간담회에서 발표한 ‘한우산업 정책현황 및 개선방향’을 중심으로 올해 한우산업 정책의 향방을 가늠해 본다.

정부와 농협은 소값 안정을 위해 즉각 실행하라!

- 요구 1. 정부는 하락된 한우도매가격이 소비자 가격과 연동될 수 있도록 물가를 관리하라.
- 요구 2. 범정부차원으로 공공기관 및 기업의 명절선물세트에 한우가 활용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요청하고 홍보하라.
- 요구 3. 한우고기 수매를 통한 가격안정을 추진하라.
- 요구 4. 사료가격 인상분 차액지원, 송아지생산안정제 개편, 암소도축을 위한 도축장려금 지원, 군납기업 급식 확대 등 실효성 있는 직접적인 대책 추진을 촉구한다.
- 요구 5. 농협은 농가의 생산물 유통판매를 위하여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특별 소비촉진에 앞장서고 정부또한 소비촉진 예산을 확대하여 즉각 집행하라.

한우산업정책, 성과 있지만 사육기간개선 필요

김 사무관은 “경제발전에 따른 국민소득 제고 및 식생활 변화에 따른 육류 선호도 제고 등으로 소고기 공급 및 소비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지난 30년간 한우산업 육성 정책과 농가 자구노력 경주 등으로 농가 규모를 비롯한 생산성·품질 및 한우고기 신뢰도 등 한우산업 경쟁력을 제고했다”고 밝혔다.

한우산업 주요정책의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한 김 사무관은 생산성 분야에서는 한우개량을 통해 한우의 생산성과 육량증가·육질개선 등 경제적 가치가 높아져 농가의 소득증대 등에 크게 기여했음을 강조했다. 생산기반과 관련해서는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을 통해 한우농

가의 사육심리를 안정시켜 한우 사육기반 안정화에 기여했으며 품질제고와 관련해서는 소고기 등급판정제를 통해 한우농가의 소득증대, 유통구조 신뢰성과 합리성 제고, 소비자 축산물 품질 알권리 및 선택권 강화 등을 성과로 내세웠다.





브랜드 경영체 규모화 한우고기 유통 차별화 한우시장 다양성 확보

김 사무관은 “그러나 이러한 제도들로 높은 등급과 적정 육량을 달성하기 위해 사육기간이 장기화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경영비 상승 등의 문제를 수반하고 있다”며 “또한 송아지생산안정제 부작용으로 농가 자율 사육규모 조절 노력을 저해하는 등 한우수급 안정에 역효과와 손실보전 한계 등이 대두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사무관은 이어 “한우 비육우 전체 생산비에서 가축비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료값이 오르면서 농가 경영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소비측면에서는 한우 고품질 전략이 소비자에게 부담되는 높은 가격을 형성했다는 의견도 상존한다”며 “사육기간이 장기화될수록 마리당 분뇨와 온실가스 발생량도 함께 증가해 환경부하 가중문제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언급했다.

질적 성장전략 병행…한우산업 발전 기본방향 제시

김 사무관은 한우농가의 경영안정과 더불어 한우산업의 지속가능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그간의 양적 측면 위주의 성장전략에 질적 측면의 성장전략을 병행 추진하는 한우산업 발전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한우산업 발전 기본방향안에 따르면 정부는 선제적 수급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소 사육방식을 개선하는 한편 경영안정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각종 정책으로 한우 생산구조를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브랜드 경영체의 규모화와 광역화를 가속해 한우고기 유통 차별화로 유통체계를 개선하고 소비자 맞춤형 제품 생산과 한우 대중육 시장 육성 등 다양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한우산업 발전 기본방향(안)

방안 1. 수급분야-선제적 수급관리체계 구축



- 자율적인 수급조절체계 강화위해 관측체계 개선, 한우수급조절매뉴얼 운영 고도화
- 한우 증가장기 수급조절정책 마련 및 자조금 활용한 선제적 암소감축 프로그램 운영

방안 2. 생산분야-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생산구조 전환



- 경영비 절감 및 환경부하 저감(탄소중립 등) 등을 위해 소 사육방식 개선 (소 사육방식 개선 시범사업 추진 중, 최적 사육모델 도출 및 농가 대상 보급사업 추진)
- 경영안정화 위한 사료단가 및 사료 투입량 적정화 (정밀사양 연구, 등급별 맞춤형 사양 프로그램 개발)
- 사료가격 안정화 위한 조세·재정 지원 확대 및 자조금 역할 강화
- 생산성 향상 위해 축사시설현대화 지원, ICT 한우생산단지 조성 확대 등 추진

방안 3. 유통분야-한우 경쟁력 강화 위한 유통체계 개선



- 브랜드 경영체 규모화·광역화 가속
- 한우고기 유통 차별화 강구
- 생산구조 전환 뒷받침 위한 단기사육 등급제 검토

방안 4. 소비·마케팅 분야-소비자 맞춤형 제품 생산 및 다양성 확보



- 소 사육방식 개선방안과 연계해 소비트렌드에 부합하는 대중육 시장 육성
- 환경·건강·동물복지 등 소비가치를 충족시킬 수 있는 친환경 인증 제품과 시장 확대

방안 5. 축산환경 분야-지속가능한 축산환경관리 기반 구축



- 저메탄 사료 개발 등 저탄소 가축사양관리 강화
- 가축분뇨 적정처리 위해 에너지화·정화처리 등 처리방식 다양화

한우 동향 분석 2022. 12

전국한우협회 한우정책연구소



【한우사육】 2022년 11월 한우 사육두수 및 가임암소 두수 전년 동월 대비 증가, 전월 대비 감소

- 한우 사육두수 전년 동월 대비 3.92% 증가, 전월 대비 0.45% 감소
- 가임암소 전년 동월 대비 3.79% 증가, 전월 대비 0.29% 감소
- 연령별 사육두수 전년 동월 대비 1세 미만 2.28%, 1세~2세 5.58%, 2세 이상 4.01% 증가



【등급판정】 11월 한우 등급판정두수 전년 동월 및 전월 대비 증가

- 1등급 이상 출현율 74.6% 전년 동월 대비 및 전월 대비 감소
- 1**등급 : 26.3%, 1*등급 : 24.3%, 1등급 : 24.0%



【도매 및 산지가격】 11월 한우 도체 평균 도매가격 전년 동월 및 전월 대비 하락, 큰 소(수) 제외한 모두 전년 동월 대비 및 전월 대비 하락

- 한우 큰 소(600kg) 암소 가격 전년 동월 대비 18.3% 하락, 전월 대비 2.7% 하락(수소만 전월 대비 1.5% 상승)
- 한우 암송아지(6~7개월령) 가격 전년 동월 대비 33.7% 하락, 전월 대비 13.3% 하락



【배합사료·정액판매】 배합사료 생산량 전년 동기간 대비 증가, 정액 판매량 전년 동기간 대비 감소

- 11월 배합사료 누적 생산량 전년 동기간 대비 3.8% 증가
- 11월 정액 누적 판매량 전년 동기간 대비 2.7% 감소



【쇠고기 수입】 11월 쇠고기 수입량은 전년 동월 대비 7.5% 감소, 전월 대비 1.6%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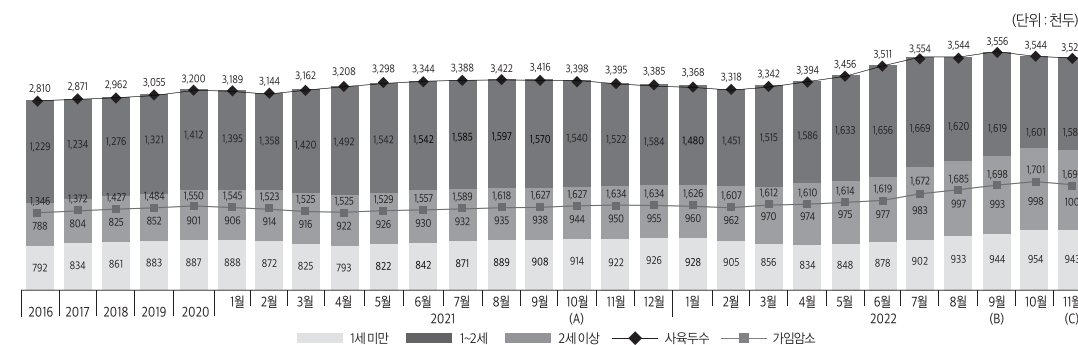
- 전월 대비 냉동육 수입 1.2% 증가, 냉장육 4.2% 감소



1. 한우 사육 동향

◎ 2022년 11월 한우 사육두수 및 가임암소 두수 전년 동월 대비 증가, 전월 대비 감소 한우 수급 안정화 및 가격 하락 대응을 위한 지속적인 암소 자육 감축 필요

- 한우 사육두수는 352만 8천 두로 전년 동월(339만 5천 두) 대비 3.92%(13만 3천 두) 증가, 전월(354만 4천 두) 대비 0.45%(1만 6천 두) 감소
- 가임암소는 169만 6천 두로 전년 동월(163만 4천 두) 대비 3.79%(6만 2천 두) 증가, 전월 (170만 1천 두) 대비 0.29%(5천 두) 감소
- 연령별 사육두수는 전년 동월 대비 1세 미만은 2.28%(2만 1천 두), 1~2세는 5.58%(5만 3천 두), 2세 이상은 4.01%(6만 1천 두) 증가
- 사육 농장수는 87,784농장으로 전년 동월(89,720농장) 대비 2.16%(1,936농장) 감소, 전월(88,137농장) 대비 0.40%(353농장) 감소
- 농장 당 사육두수는 40.2두로 전년 동월(37.9 두) 대비 6.07%(2.3두) 증가, 전월(40.2두) 대비 증감 없음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이력제 소이력관리현황

【그림 1】 가임암소 연령별 두수 현황

【표 1】 한우 사육 현황

(단위: 호, 천두, %, 두)

구분		농장수	사육두수	가임 암소두수	송아지두수	연령별 두수			농장당 사육두수
						1세 미만	1~2세	2세 이상	
2016		97,498	2,810	1,346	723	792	788	1,229	28.8
2017		94,107	2,871	1,372	784	834	804	1,234	30.5
2018		92,238	2,962	1,427	899	861	825	1,276	32.1
2019		89,616	3,055	1,484	135	883	852	1,321	34.1
2020		88,879	3,200	1,550	55.5	887	901	1,412	36
2021	1월	88,933	3,189	1,545	58.2	888	906	1,395	35.9
	2월	88,860	3,144	1,523	65.1	872	914	1,358	35.4
	3월	89,003	3,162	1,525	79.7	825	916	1,420	35.5
	4월	89,295	3,208	1,525	131.5	793	922	1,492	35.9
	5월	89,494	3,298	1,529	142.5	822	926	1,542	36.8
	6월	89,576	3,344	1,557	123.8	842	930	1,571	35.4
	7월	89,617	3,388	1,589	101.7	871	932	1,585	37.8
	8월	89,658	3,422	1,618	88.7	889	935	1,597	38.2
	9월	89,678	3,416	1,627	77.9	908	938	1,570	38.1
	10월	89,645	3,398	1,627	67.2	914	944	1,540	37.9
	11월(A)	89,657	3,395	1,634	62.7	922	950	1,522	37.9
	12월	89,720	3,385	1,634	59.7	926	955	1,504	37.7
2022	1월	89,559	3,368	1,626	61	928	960	1,480	37.6
	2월	89,378	3,318	1,607	58.2	905	962	1,451	37.1
	3월	89,378	3,342	1,612	44.1	856	970	1,515	37.4
	4월	89,343	3,394	1,610	87.7	834	974	1,586	38.0
	5월	89,242	3,456	1,614	89.5	848	975	1,623	38.7
	6월	89,153	3,511	1,639	78.6	878	977	1,656	39.4
	7월	89,016	3,554	1,672	66.5	902	983	1,669	39.9
	8월	88,633	3,544	1,685	46.8	933	991	1,620	40.0
	9월	88,471	3,556	1,698	41.2	944	993	1,619	40.2
	10월(B)	88,137	3,544	1,701	34.1	945	998	1,601	40.2
	11월(C)	87,784	3,528	1,696	32.4	943	1,003	1,583	40.2
	증감률	전년동월 (C/A)	△2.16	3.92	3.79	△48.33	2.28	5.58	4.01
전월 (C/B)		△0.40	△0.45	△0.29	△4.99	△0.21	0.50	△1.12	0.00

자료 : 통계청, 축산물품질평가원

2. 한우 등급판정 동향

◎ 11월 한우 등급판정두수 전년 동월 및 전월 대비 증가

- 11월 한우 등급판정두수는 72,171두로 전년 동월(63,233두) 대비 14.1%(8,938두) 증가, 전월(62,964두) 대비 14.6%(9,207두) 증가
 - 성별비율은 암소 47.9%, 수소 0.6%, 거세우 51.5%
 - * 전월대비 : 암소 1.7%p↑, 수소 0.1%p↑, 거세우 1.8%p↓, 거세율 0.2%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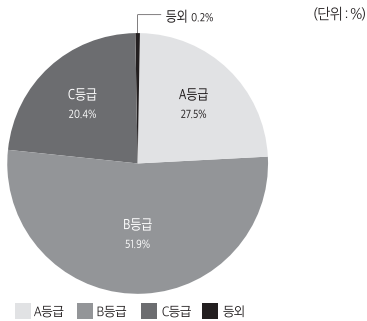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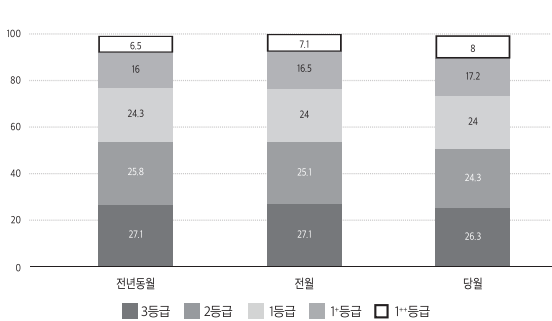
[표 2] 한우 성별 등급판정두수

(단위 : 두, %)					
구분	계	암	수	거세	수소거세율
전년누계 (‘21.1.~11월)	714,373	324,418	7,863	382,092	98.0
	100.0	45.4	1.1	53.5	
금년누계 (‘22.1.~11월)	772,267	366,917	5,624	399,726	98.6
	100.0	47.5	0.7	51.8	
전년동월 (‘21.11월)	63,233	29,099	465	36,154	98.7
	100.0	46.2	0.7	51.8	
전월 (‘22.10월)	62,964	29,099	322	33,543	99.0
	100.0	46.2	0.5	53.3	
당월 (‘22.11월)	72,171	34,565	439	37,167	98.8
	100.0	47.9	0.6	51.5	

자료 : 축산물품질평가원 ‘등급판정통계’

◎ 11월 한우 등급판정 결과 육질 1등급 이상 출현율 74.6%, 전년 동월 대비 0.1%p 감소, 전월 대비 1.5%p 감소

- 11월 1등급 이상 등급별 출현율은 1**등급 26.3%, 1*등급 24.3%, 1등급 24.0%
 - 1등급 이상 전체 출현율은 전월(76.1%) 대비 1.5%p↓, 1**등급 0.8%p↓, 1*등급 0.8%p↓, 1등급 동일
 - 전년 동월(74.7%) 대비 1등급 이상 전체 출현율 0.1%p↓, 1**등급은 0.8%p↓, 1+등급 1.5%p↓, 1등급은 0.3%p↓
 - 전년 누계(74.7%) 대비 1등급 이상 전체 출현율 0.4%p↑, 1**등급은 1.9%p↑, 1*등급은 0.4%p↓, 1등급은 1.1%p↓



자료 : 축산물품질평가원 ‘등급판정통계’

[그림 3] 육질 1등급 이상 출현율(좌) 및 육량 등급 출현율(우)

[표 3] 한우 등급별 출현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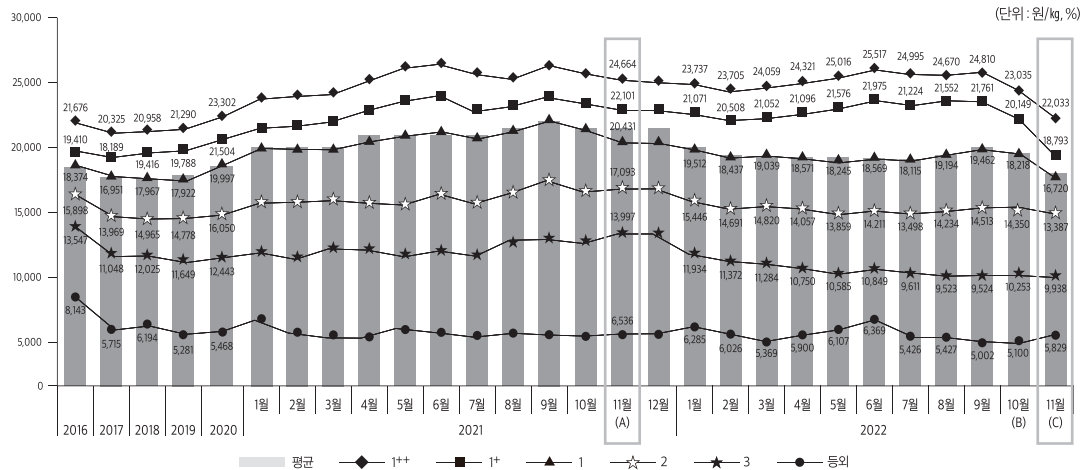
구분		판정두수	육질등급					육량등급			등외	
			1**	1*	1	소계	2	3	A	B		C
2016		737,476	9.6	30.4	29.4	69.3	22.8	7.6	22.9	47.2	29.6	0.2
2017		742,536	10.1	33.3	28.7	72.1	20.3	7.4	21.2	47.1	31.4	0.3
2018		736,354	12.2	30.4	30.4	72.9	19.4	7.3	20.5	47.6	31.7	0.3
2019		765,297	15.7	28.3	29.9	74.0	18.6	7.1	20.7	48.2	30.8	0.3
2020		762,749	22.5	25.5	26.1	74.1	18.2	7.4	25.0	50.5	24.2	0.3
2021		794,238	23.8	25.8	25.3	74.9	17.5	7.3	24.4	52.4	23.0	0.3
2021	11월(A)	63,233	27.1	25.8	24.3	77.2	16.0	6.5	23.2	52.5	24.0	0.2
	1~11월(B)	714,373	23.5	25.7	25.4	74.7	17.7	7.4	24.6	52.3	22.8	0.3
2022	’21.10월(C)	62,964	27.1	25.1	24.0	76.1	16.3	7.4	28.0	52.1	19.6	0.2
	11월(D)	72,171	26.3	24.3	24.0	74.6	17.2	8.0	27.5	51.9	20.4	0.2
	1~11월(E)	772,267	25.4	25.3	24.3	75.1	17.1	7.6	27.0	52.1	20.7	0.2
전월대비(D-C)		9,207	△0.8	△0.3	0.0	△1.5	0.9	0.6	△0.5	△0.2	0.8	0.0
전년동월대비(D-A)		8,938	△0.8	△1.5	△0.3	△2.6	1.2	1.4	4.3	△0.6	△3.6	0.0
전년누계대비(E-B)		57,894	1.9	△0.4	△1.1	0.4	△0.6	0.2	2.4	△0.2	△2.1	△0.1

자료 : 축산물품질평가원 ‘등급판정통계’

3. 한우 도매 및 산지가격 동향

◎ 11월 한우 평균 도매가격 전년 동월 및 전월 대비 하락

- 11월 1등급 기준 도매가격(16,720원/kg)은 전년 동월(20,431원/kg) 대비 18.2%(3,711원/kg) 하락, 전월(18,218원/kg) 대비 8.2%(1,498원/kg) 하락
 - 한우도체 kg당 평균 도매가격(17,679원/kg)은 전년 동월(21,224원/kg) 대비 16.7%(3,545원/kg) 하락, 전월(18,898원/kg) 대비 6.5%(1,219원/kg) 하락



자료 : 축산물품질평가원 ‘등급판정통계’

[그림 4] 한우도체 육질등급별 도매(경락) 가격 추이(전국)

◎ 11월 한우 산지가격 큰 소(수)만 전월대비 상승(전년 동월 대비 하락), 그 외 모두 모두 전년 동월 및 전월 대비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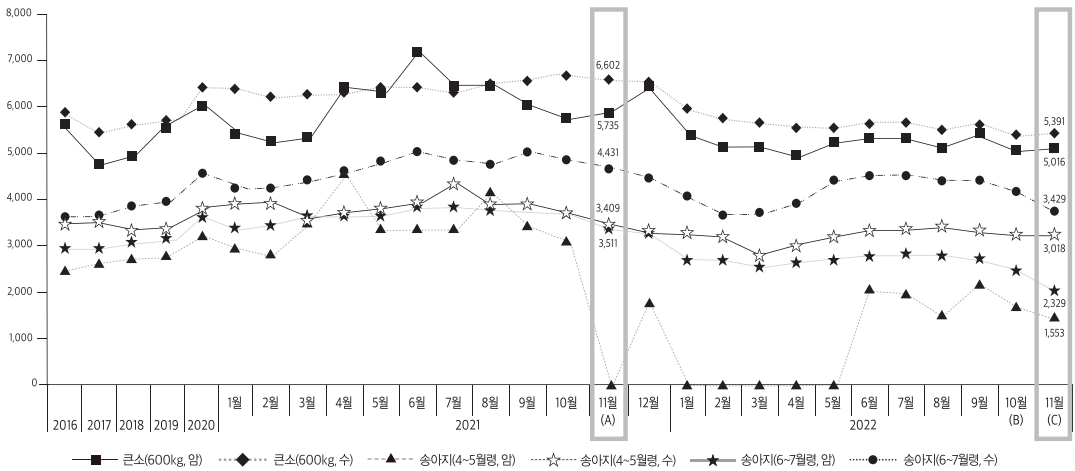
- 11월 큰 소(600kg) 산지가격은 암소의 경우 5,391천원으로 전년 동월(6,602천원) 대비 18.3%(1,211천원) 하락, 전월(5,538천원) 대비 2.7%(147천원) 하락
-수소의 경우 5,016천원으로 전년 동월(5,735천원) 대비 12.5%(719천원) 하락, 전월(4,944천원) 대비 1.5%(72천원) 상승
- 11월 송아지(6~7개월령) 산지가격은 암송아지의 경우 2,329원으로 전년 동월(3,511천원) 대비 33.7%(1,182천원) 하락, 전월(2,686천원) 대비 13.3%(357천원) 하락
-수송아지의 경우 3,429천원으로 전년 동월(4,431천원) 대비 22.6%(1,002천원) 하락, 전월(3,904천원) 대비 12.2%(475천원) 하락

[표 4] 한우도체 육질등급별 도매(경락) 가격 추이(전국)

(단위 : 원/kg, %)

구분		1**	1*	1	2	3	등외	평균
2016		21,676	19,410	18,374	15,898	13,547	8,143	18,116
2017		20,325	18,189	16,951	13,969	11,048	5,715	16,719
2018		20,958	19,416	17,967	14,965	12,025	6,194	17,772
2019		21,290	19,788	17,922	14,778	11,649	5,281	17,965
2020		23,302	21,504	19,997	16,050	12,443	5,468	19,891
2021	11월(A)	24,664	22,101	20,431	17,093	13,997	6,536	21,224
2022	10월(B)	23,035	20,149	18,218	14,350	10,253	5,180	18,898
	11월(C)	22,033	18,793	16,720	13,387	9,938	5,829	17,679
증감율	전년동월(C/A)	△10.7	△15.0	△18.2	△21.7	△29.0	△10.8	△16.7
	전월(C/B)	△4.3	△6.7	△8.2	△6.7	△3.1	12.5	△6.5

자료 : 축산물품질평가원 '등급판정통계'



자료 : 농협 축산정보센터 '월별산지가격동향'

주 : 2020년 송아지(4~5월령)의 경우 3월과 5월은 코로나로 인한 가축시장 임시폐쇄로 가격자료 없음

[그림 5] 한우 산지가격 추이(전국)

[표 5] 한우 산지가격 추이

(단위 : 천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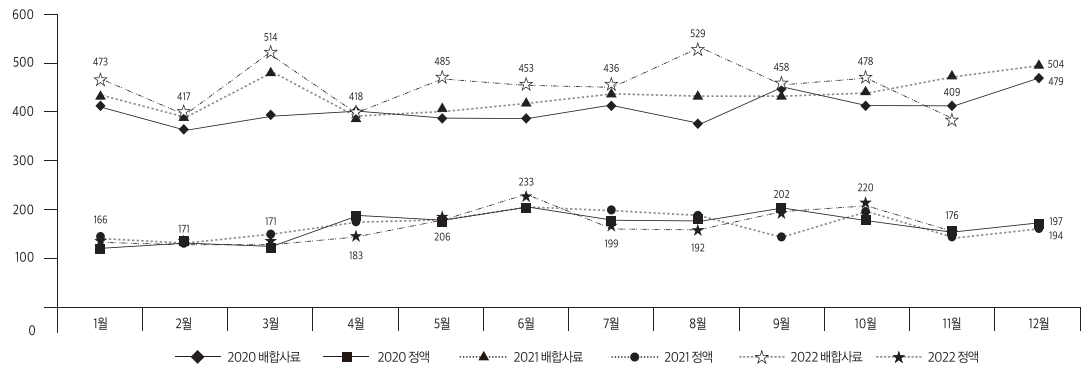
구분		큰소(600kg)		송아지(4~5월령)		송아지(6~7월령)	
		암	수	암	수	암	수
2016		5,816	5,650	2,465	3,485	2,900	3,550
2017		5,406	4,733	2,612	3,444	2,919	3,572
2018		5,599	4,911	2,725	3,272	3,118	3,841
2019		5,646	5,476	2,790	3,394	3,212	3,930
2020		6,114	5,446	3,060	3,711	3,435	4,295
2021	1월	6,372	5,372	2,990	3,877	3,402	4,196
	2월	6,209	5,207	2,880	3,891	3,436	4,263
	3월	6,263	5,348	3,500	3,641	3,594	4,328
	4월	6,322	6,434	4,500	3,597	3,729	4,562
	5월	6,379	6,289	3,350	3,709	3,778	4,785
	6월	6,508	7,159	3,350	3,956	3,849	5,003
	7월	6,369	6,412	3,351	4,342	3,867	4,877
	8월	6,499	6,447	4,185	3,851	3,722	4,710
	9월	6,529	5,854	3,200	3,893	3,868	4,813
	10월	6,751	5,504	2,830	3,669	3,728	4,672
	11월(A)	6,602	5,735	-	3,409	3,511	4,431
2022	1월	6,026	5,370	-	3,329	2,864	3,842
	2월	5,882	5,148	-	3,198	2,862	3,640
	3월	5,701	5,154	-	2,893	2,735	3,683
	4월	5,600	4,967	-	3,048	2,868	4,001
	5월	5,521	5,163	-	3,379	2,907	4,208
	6월	5,753	5,193	2,278	3,547	2,994	4,407
	7월	5,551	5,053	2,050	3,158	2,898	4,266
	8월	5,511	4,801	1,630	3,217	2,776	4,210
	9월	5,621	5,317	2,400	3,147	2,859	4,251
	10월(B)	5,538	4,944	2,001	3,045	2,686	3,904
	11월(C)	5,391	5,016	1,553	3,018	2,329	3,429
증감율	전년동월(C/A)	△18.3	△12.5	-	△11.5	△33.7	△22.6
	전월(C/B)	△2.7	1.5	△22.4	△0.9	△13.3	△12.2

자료 : 농협 축산정보센터 '월별산지가격동향'

4. 배합사료 생산 및 한우정액 판매 동향

◎ 2022년 11월 배합사료 생산량 전년 동기간 대비 증가, 한우 정액판매량 전년 동기간 대비 감소

- 11월 배합사료 생산량은 409천 톤(당해년도 누적 생산량 5,070천 톤)으로 전년 동기간(4,883천 톤) 대비 3.8%(187천 톤) 증가
- 11월 한우 정액판매량은 176천 str(당해년도 누적 판매량 2,119천 str)로 전년 동기간(2,177천 str) 대비 2.7%(58천 str) 감소



자료 : 한국사료협회, 농협경제지주 한우개량사업소

[그림 6] 배합사료 및 정액판매 추이

[표 6] 배합사료 및 정액판매 추이

(단위 : 천톤, 천st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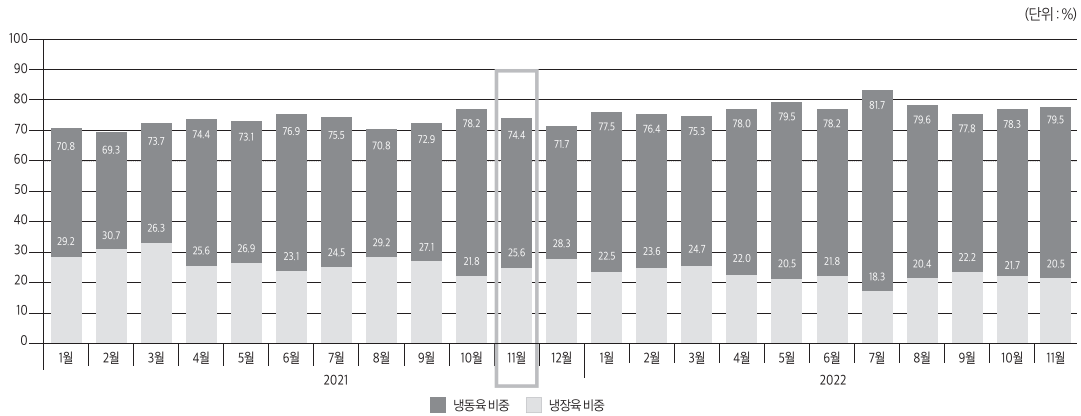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배합 사료	2020	426	384	412	414	404	402	427	390	457	428	430	479	5,053
	2021	442	406	490	406	423	435	451	444	451	453	482	504	5,387
	2022	473	417	514	418	485	453	436	529	458	478	409		5,070
정액	2020	157	168	155	213	207	231	207	211	227	205	186	194	2,361
	2021	172	162	179	209	209	233	226	214	183	220	170	197	2,374
	2022	171	171	171	183	206	233	199	192	202	220	176		2,119

자료 : 한국사료협회, 농협경제지주 한우개량사업소

5. 쇠고기 수입현황

◎ 2022년 11월 쇠고기 수입량은 전년 동월 대비 감소, 전월 대비 증가

- 11월 쇠고기 수입량은 3만 6,726톤으로 전년 동월 3만 9,704톤 대비 7.5%(2,978톤) 감소, 전월 3만 6,159톤 대비 1.6%(567톤) 증가
- 전월 대비 냉동 쇠고기 1.2%(898톤) 증가, 냉장 쇠고기 4.2%(331톤)감소



자료 : 수입축산물 부위별 검사실적, 식품의약품안전처

[그림 7] 수입쇠고기 냉동육과 냉장육 비중 변화 추이

- 11월 부위별 쇠고기 수입물량은 전년 동월 대비 갈비만 17.2%(2,136톤) 증가, 등심 27.9%(1,291톤), 앞다리 24.6%(1,414톤), 기타부위 21.9%(2,290톤), 양지 1.8%(119톤) 감소
- 11월 국가별 쇠고기 수입량은 전월 대비 미국산이 14.5%(2,796톤) 증가, 호주산은 21.5%(3,089톤) 감소

[표 7] 쇠고기 수입 추이

(단위 : 톤, %)

구분		물량			부위별					국별		
		합계	냉동	냉장	갈비	양지	앞다리	등심	기타	미국	호주	기타
2015		297,265	245,952	51,313	115,460	38,582	31,404	42,826	68,993	112,431	164,063	20,771
2016		361,531	301,219	60,312	133,197	35,049	45,295	50,001	97,989	153,181	177,530	30,820
2017		344,271	265,665	78,606	142,659	37,517	42,648	39,031	82,416	168,502	149,935	25,834
2018		415,685	326,531	89,154	151,933	53,737	54,270	55,595	100,150	219,769	167,454	28,462
2019		426,626	339,240	87,386	164,792	57,444	53,881	49,849	100,660	237,624	163,158	25,844
2020		419,469	321,646	97,823	161,018	54,616	54,937	44,522	104,376	228,686	158,293	32,490
2021	1월	34,626	24,503	10,123	11,799	5,164	4,810	3,112	9,741	17,111	14,676	2,839
	2월	26,774	18,547	8,227	10,308	4,057	3,688	2,263	6,458	18,797	5,585	2,392
	3월	41,272	30,406	10,866	13,090	7,874	5,548	4,256	10,504	21,154	16,657	3,461
	4월	37,495	27,888	9,607	13,334	5,640	4,848	3,744	9,929	20,470	13,298	3,727
	5월	39,815	29,116	10,699	12,337	5,640	5,240	4,426	12,172	20,794	16,220	2,801
	6월	36,991	28,430	8,562	12,020	5,384	4,740	3,642	11,205	23,288	11,009	2,694
	7월	38,455	29,032	9,423	13,073	3,978	5,279	2,681	13,444	21,096	14,516	2,843
	8월	37,402	26,487	10,915	14,018	4,247	4,930	4,146	10,061	24,686	9,681	3,035
	9월	38,746	28,247	10,499	12,976	4,919	5,486	5,043	10,322	22,435	13,205	3,106
	10월	42,494	33,249	9,244	15,505	5,723	5,488	5,144	10,634	24,630	13,952	3,912
	11월(A)	39,704	29,544	10,161	12,394	6,475	5,737	4,630	10,468	18,309	17,846	3,549
	12월	39,018	27,963	11,055	12,627	6,230	4,831	3,861	11,469	22,104	13,472	3,442
	누계	452,792	333,412	119,381	153,481	65,331	60,625	46,948	126,407	254,874	160,117	37,801
2022	1월	39,218	30,375	8,843	12,121	7,403	5,285	3,964	10,445	15,987	17,969	5,262
	2월	34,349	26,232	8,117	13,150	6,485	4,737	2,640	7,337	22,977	8,291	3,081
	3월	39,926	30,050	9,876	14,508	8,339	4,291	3,412	9,376	23,943	11,821	4,162
	4월	36,355	28,367	7,988	14,449	7,439	4,073	2,940	7,454	21,141	9,854	5,360
	5월	44,669	35,532	9,137	16,877	9,480	4,641	3,490	10,181	24,545	13,732	6,392
	6월	37,607	29,390	8,217	15,550	6,572	3,715	3,192	8,578	20,800	11,886	4,921
	7월	43,249	35,349	7,900	16,485	7,127	4,039	3,724	11,874	23,725	14,837	4,687
	8월	42,067	33,486	8,581	14,041	6,418	4,681	4,186	12,741	21,558	16,452	4,057
	9월	44,062	34,293	9,769	15,137	5,904	5,168	4,172	13,681	23,894	16,036	4,132
	10월	36,159	28,305	7,854	13,245	5,218	4,209	2,975	10,512	19,297	14,391	2,471
	11월(B)	36,726	29,203	7,523	14,530	6,356	4,323	3,339	8,178	22,093	11,302	3,331
	누계	434,387	340,582	93,805	160,093	76,741	49,162	38,034	110,357	239,960	146,571	47,856
증감률	전년동기(B/A)	△7.5	△1.2	△26.0	17.2	△1.8	△24.6	△27.9	△21.9	20.7	△36.7	△6.1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축산물 검사실적 순기보고'



일본의 소값 안정 유통업체 지원정책과 시사점

전국한우협회 한우정책연구소



1. 정책사업 개요

■ 사업명: '와규육 보관 재고 지원 긴급 대책사업'
(和牛肉保管在庫支援緊急対策事業)

■ 사업배경 및 요점

- ▷ 코로나 사태로 확산으로, 외국 관광객 및 외식수요가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와규육의 수요감소와 가격 급락으로, 와규육 재고가 급증
-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면 식육도매업체의 경영악화뿐만 아니라, 소 사육 농가 경영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 ▷ 이에 판매촉진에 노력하는 식육도매업체에 대해, 재고의 보관료 등을 지원함으로써, 와규육의 원활한 유통을 도모
- 아울러서, 판매촉진 계획을 수립하고 실제 판매로 이어진 경우는, 그 실적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
- ▷ 사업 기간 및 예산: 3년간(20 ~ 22년도) 500억 엔(약 4,900억 원)
- ▷ 사업수행기관: (독립행정법인) 농축산업진흥기구(alic)

■ 정책목표

- ▷ '식량·농업·농촌기본계획'에서 설정한 수요에 따른 생산 수량 목표 달성
- 소고기 생산량: (18년) 33만 톤 → (30년) 40만 톤

■ 사업 주요내용

- ① 코로나 사태 영향 등으로 늘어난 와규육의 재고 해소를 위해, 판매촉진계획을 수립한 식육도매업자에 대해, 해당 재고의 보관경비(동결비용, 보관료, 금리 등)를 지원
- ② 아울러, 판매촉진계획에 따라 실제로 판매한 경우, 그 실적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재고 해소를 위한 업체 노력을 지원

■ 사업 실시주체

- ▷ '농업협동조합연합회'
- ▷ 식육 판매 및 가공업체로 구성된 '협동조합'
- ▷ 식육 판매 및 가공업체로 구성된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

■ 사업 세부내용

- ▷ '사업 실시 주체'는 다음과 같이 (1), (2) 사업을 직접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

(1) 재고 소고기 보관경비 지원 사업

- 소고기 수요의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①부분육으로 가공, ②영업창고로 운송, ③영업창고에서의 냉동보관 사업

(2) 판매촉진 지원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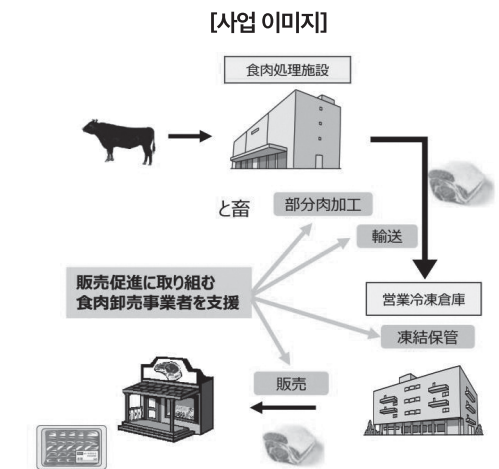
- 판매촉진계획에 따라 수행하는 냉동 소고기의 판매촉진을 지원하는 사업

(3) 사업추진 지도

- ①사업 대상이 되는 부분육('대상 소고기')이 적절히 보관·판매되도록 **현품확인** 등을 실시
- ②개체식별번호와 대조를 위해, 독립행정법인농축산업진흥기구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DNA 검사**를 실시
- 기타, (1) 및 (2)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도·조사업무** 등

■ 사업참가자요건

- ▷ 사업참가자는 와규육을 직접 소유·보관하면서, 새로운 판매 방법에 따라 부분육으로 최초 포장된 날짜(포장일)부터 기산 하여, 1년 이내에 판매할 계획을 작성한 식육도매업체



■ 사업대상이 되는 와규육

- ▷ 대상 소고기는 '사업참가자'가 소유하는 와규육으로, 다음 요건을 전부 충족하여야 함
- (1) 2020년 4월 6일 이전에 포장된 것에 대해서는, 부분육 및 슬라이스 육 등, 2020년 4월 7일 이후에 포장된 것에 대해서는 포장육에 한정

※ 사업시행일 : 2020년 4월 10일

◎ 사업 시작 연도는 2020년도였으며, 최종연도는 2022년도

- 최종연도 2022년도는 10월 말까지 보관한 지육을 지원 대상으로 하였으나, 최근 이 기한을 2023년 2월 말 까지 연장하기로 결정
- 코로나19 사태에 의한 와규 수요에의 영향이 장기화하고 있어, 관계자로부터는 "사업을 활용할 수 없게 되면, 지육 가격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지원 연장을 요구하고 있었음

◎ 2023년도 이후에 대해서는 이번 사업의 효과나 과제를 분석한 후 가격 급락방지를 위한 후속책을 마련할 계획
(일본농업신문 22년 9월 15일자)

- (2) 영업창고의 냉동고에 입고한 날로부터 기산 하여 1개월 이상 냉동 보관하고 있을 것
- 영업창고에 입고후 냉장보관에서 냉동보관으로 전환한 경우는, 당해 냉동전환 날짜부터 기산
- (3) 판매촉진계획에 따라, 포장일로부터 기산 하여 1년 이내에 판매되어야 함

■ 사업별 지원금액

(1) 재고 소고기 보관경비 지원 사업

- ① 가공 : 150엔(약 1,500원)/kg (지육 기준)
- 냉동보관 대상 소고기에 대해, 가공에 필요한 경비 상당액
- ② 운송 : 32엔(약 320원)/kg (부분육 기준)
- 냉동보관 대상 소고기에 대해, 영업창고로 운송에 필요한 경비 상당액
- ③ 보관 등 : 정액
- 대상 소고기에 들어가는 동결비용, 손해보험료, 영업창고의 보관, 입출고, 재고증명서발행에 들어간 비용
- ④ 금리 : 1일당 0.19엔(약 1.9원)/kg (부분육 기준)
- 냉동보관을 하는 대상 소고기의 보관기간 중의 금리 상당액

(2) 판매촉진 지원 사업

- ▷ 판매촉진계획에 따라 판매된 대상 소고기의 '판매촉진장려금'
- 2020년도 판매분 : 1,000엔(약 10,000원)/kg (부분육 기준)
 - 2021~2022년도 판매분 : 850엔(약 8,500원)kg (부분육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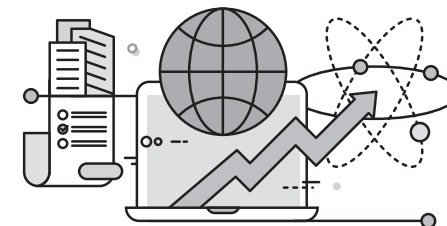


(3) 사업추진 지도

- ① 현품확인 등 : 정액
- '사업실시주체'가 현품확인 등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 ② DNA 검사 실시
- '사업실시주체'가 대상 소고기에 대해, 개체식별번호를 대조하기 위해 실시하는 DNA 검사에 필요한 경비
- 보관 대상 소고기의 DNA 검사용으로 소고기를 구입 하는데 들어간 경비 : 정액 (7,279엔(약 71,000원)/kg 을 상한으로 함)
- DNA 검사경비(샘플 배송비 포함) : 정액
- ③ 기타 사무비 : 정액
- '사업실시주체'가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수행하는 지도, 조사 등에 필요한 경비

2. 시사점

- 한우 지육 가격 하락 배경에는, 한우산업 전방산업에서 중심 역할을 하는 식육도매업체의 한우 지육 매입 여력 부족이 직접적인 원인
- 경기 불황 등으로 한우고기 수요감소 및 소비시장 위축하에서, 식육도매업체의 지육 매입 여력 부족은 한우농가 수익성 악화와 경영 불안을 초래
- 한우 농가의 경영안정 및 한우 지육 가격 유지를 위해서는, 식육도매업체의 재고에 대한 경비 지원으로 한우 지육 매입 여력을 회복시킬 필요가 있음
- 한우 지육 가격이 폭락하는 상황에서 냉동육 보관은, 냉장육에 비해 장기 보관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시장격리의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음
- 최근 한우 가격 급락 대응책으로, 일본의 '와규육 보관 재고 지원 긴급 대책사업'사례를 적극 참고할 필요가 있음



》참고자료 ○ 일본 농림수산성(<https://www.maff.go.jp>)
○ 일본 농축산업진흥기구(alic)
○ 일본농업경제신문(22년 9월 15일)

가격하락 및 생산비 상승이 한우산업에 미치는 영향

전국한우협회 한우정책연구소

◎ 한우 생산비 및 비용구조

- 2021년 한우 비육우 생산비와 비용구조
 - 지육 1kg당 생산비는 21,137원, 경영비는 18,718원
 - 비목별 구성에서는 가축비(43.8%), 사료비(35.1%)가 약 8할 차지
 - 2023년 한우비육우 생산비 추정 결과(지육 1kg당)
 - 평균 : 27,234원 (2021년 대비 28.8%, 6,097원 상승)
 - 규모별 : (20두 미만) 31,640원, (20~49) 29,326원, (50~99) 27,342원, (100두 이상) 24,953원
 - 2023년 한우 비육우 마리당(지육 450kg) 순수익 전망
 - 평균 : △4,155천원
 - 규모별 : (20두 미만) △6,138천원, (20~49) △5,097천원, (50~99) △4,204천원, (100두 이상) △3,129천원
- ※ 한우 평균 도매가격 : (21) 21,155원 → (22,1~11월) 19,334원 → (23 전망) 18,000원

◎ 2023년 한우가격 전망

- 2023년 한우 도매가격은 18,000원으로 가정
 - 농경연 발표 한우 관측보(12월)에 따르면, 23년 도매가격은 도축두수 증가와 수요감소 영향으로 17,000~18,500원 수준으로 하락 전망
 - 사육마릿수(12월 기준) : (22) 3,557천두 → (23) 3,577천두, 5.6%↑
 - 도축마릿수 : (22) 849천두 → (23) 944천두, 11.2%↑
 - 한우 평균 도매가격 : (21) 21,155원 → (22,1~11월) 19,334원 → (23 전망) 18,000원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7,500~18,500	17,500~18,500	18,000~19,000	17,000~18,000

자료 : 농경연, 농림축산검역본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2023년 한우 수익성 추정(평균)

(단위 : 원)

구 분	지육 1kg당	비육우 마리당(지육 450kg)
수 입(A)	18,000	8,100,000
경영비(B)	24,194	10,887,300
생산비(C)	27,234	12,255,300
소 득(A-B)	△6,194	△2,787,300
순수익(A-C)	△9,234	△4,155,300

자료 : 축산물생산비통계(2021년)

- 주 : 1) 지육 단가는 농경연의 23년 도매가격 전망에서 18,000원 적용
- 2) 비육우 마리당 수입 및 비용은 지육 450kg으로 환산

- 한우 비육우 순수익은, 지육 1kg당 △9,234원, 마리당 △4,155천원 적자 발생 (한우 마리당 지육 450kg 기준)

◎ 2023년 규모별 마리당 한우 수익성(지육 450kg)

(단위 : 천원)

구 분	20두 미만	20~49	50~99	100두 이상
수 입(A)	8,100	8,100	8,100	8,100
경영비(B)	11,096	11,171	11,104	10,549
생산비(C)	14,238	13,197	12,304	11,229
소 득(A-B)	△2,996	△3,071	△3,004	△2,449
순수익(A-C)	△6,138	△5,097	△4,204	△3,129

자료 : 축산물생산비통계(2021년)

- 주 : 1) 지육 단가는 농경연의 23년 도매가격 전망에서 18,000원 적용
- 2) 비육우 마리당 수입 및 비용은 지육 450kg으로 환산

- 두수 규모별 한우 수익성을 보면, 50두 규모 미만은 평균 대비 적자폭이 더 크게 나타남
 - 20두 미만은 두당 순수익이 △6,138천원, 20~49두 규모는 △5,097천원 적자로, 평균(△4,155천원) 대비 각각 1,983천원(47.7%), 942천원(22.7%) 더 큰 적자를 낼 것으로 추정됨
 - 한편 100두 이상 규모에서도 순수익은 평균보다는 적지만, △3,129천원의 적자가 발생

- 우리나라 한우산업은 50두 미만 농장이 66,678호로 전체 농장수 88,633호의 75.2%를 차지(2022년 9월 기준)
- 특히 20두 미만 농장은 약 절반인 48.8%를 차지
- 사육규모별 농장수(22. 3/4분기)

사육규모	20미만	20~49	50~99	100 이상	합계
농장수(호)	43,242	23,436	13,425	8,530	88,633
(구성비)	(48.8%)	(26.4%)	(15.1%)	(9.6%)	(100.0%)

자료 : '가축동향' 통계청

한우가격 하락 및 생산비 폭등으로 인한 한우산업 붕괴 우려

◎ 50두 미만 소규모 한우농가의 폐업 가능성

- 가격하락 및 생산비 상승으로 겪는 경영의 어려움은 소규모 농가일수록 견디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50두 미만 농가부터 폐업이 속출하면서 한우산업의 생산 기반 붕괴가 우려됨
- 50두 미만은, 2023년 생산비 추정 결과, 경영 지속 지표인 경영비 기준으로도 마리당 약 300만원의 적자소득을 볼 것으로 전망됨
- 이처럼 큰 폭의 적자소득이 지속되면, 경영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임

◎ 과거 한우가격 폭락시 한우산업 구조 변화(2010~2015년)

- 과거 2010~2015년의 가격 파동시 한우농가는 소규모 농가 중심으로 큰 폭으로 감소한 경험이 있음
- 전체 한우농가 수는 2010년 166.2천 가구에서 2015년 89.4천 가구로 53.8%(76.8천 가구)가 감소
- 감소 농가는 대부분 50두 미만 농가로, 50두 미만에서는 2010년 153.9천 가구에서 2015년 75.7천 가구로 50.8%(78.2천 가구)가 감소
- 과거 가격 파동기 한우농가 구조 변화(사육가구수)

(단위 : 천가구)

구 분	50두 미만	50~99두	100두 이상	계
2010년 (구성비)	153.9 (92.6%)	8.3 (5.0%)	4.0 (2.4%)	166.2 (100.0%)
2015년 (구성비)	75.7 (84.7%)	8.1 (9.1%)	5.6 (6.3%)	89.4 (100.0%)
10~15년변동	△78.2	△0.2	1.6	△76.8

자료 : '가축동향' 통계청
주 : 각 연도는 12월 기준

- 당시 한우 가격은 2010년 16,000원대에서 2011년 12,000원대로 폭락하였으며, 2015년이 되어서야 폭락 이전의 16,000원대로 회복
- 한우 가격 하락과 회복(2010~2015년)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한우 평균가격 (원/kg)	16,036	12,782	13,121	12,814	14,283	16,284

자료 : 축평원, 축산유통종합센터

◎ 2022~2025년 한우산업 구조 전망

- 과거 한우가격 파동기에 비추어 볼 때, 이번 가격 파동기에서 소규모 농가를 위한 충분한 대책이 없다면, 전체 한우농가수는 현재의 약 9만에서 6만 후반대로 2만 농가 이상이 폐업할 것으로 전망됨
- 50두 미만 농가에서, 과거의 감소율인 51%의 절반 이상인 30% 정도가 감소하고, 50~99두 규모에서는 10%가 감소하며 100두 이상 규모는 변화가 없다고 가정
- ※ 평균 사육두수가 2010년 16.6두에서 2022년 약 40두로 증가한 점과, 상대적으로 낮은 기저효과 등을 고려, 50두 미만 감소율이 과거보다는 낮을 것으로 가정
- 2022~2025년 사육규모별 한우 농장수 전망

구 분	20미만	20~49	50~99	100 이상	합계
2022년	43,242	23,436	13,425	8,530	88,633
잔존율	70%	70%	90%	-	
2025년 예상	30,269	16,405	12,083	8,530	67,287

자료 : '가축동향' 통계청
주 : 잔존율은 100%에서 예상 감소율을 뺀 나머지

수의칼럼

저자소개

아시아동물의학연구소는 가축질병진단 및 시험연구, 동물용 의약품의 효능시험연구, 가축질병제어 인공수정·수정란 이식연구교육 및 교재개발, 환경분쟁에 따른 가축피해보상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가축계의 파수꾼으로 불리는 류일선 소장은 평생을 가축과 농가 지킴이로 살아온 분으로 1984년 경북대 수의학과를 졸업하고, 국립축산과학원에 들어가 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수의연구사 및 수의연구관으로서 대가축 및 축산농가와 협력해 왔다.
前 한국소임상수의사회 회장 / 前 국립축산과학원 수의연구사·수의연구관
前 한국수정란이식학회 회장 / 前 한국우병학회 회장



류일선

아시아동물의학연구소장
수의학 박사

‘엄동설한’ 한우 송아지 설사병 예방 및 처치요령

지난해 크리스마스를 지나 연말 연초에 이르기까지 하루 종일 영하권에 머무르는 날이 많았고 주기적으로 강한 한기가 내려오면서 영하 10도 이하의 매서운 한파가 지속됐다. 이번 겨울에는 고기압과 저기압 모두 강한 전형적인 겨울철 기압 배치인 서고동저가 강하게 나타나 시베리아 고기압의 확장으로 우리나라에 한파와 강추위가 1개월간 지속될 것이라는 기상청 전망에 따라 한우 농가에서는 특히 신생 송아지의 보온 등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한우 신생 송아지의 설사병은 예방이 치료보다 우선해야 하며, 생후 첫 1~2주를 신생 송아지로 정의하는데 이 시기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특히 어미로부터 초유 급여시 면역글로부린의 양, 송아지를 에워싸고 있는 환경에 원인체의 종류와 양, 스트레스는 질병 발생의 유인이 되거나 촉진시킨다.

따라서 한우농가들은 신생자우가 출생 6~12시간 내 고품질의 초유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태어난 송아지의 약 10~30%에서 수동면역부전이 나타나는데, 난산이나 초유 섭취를 거부하거나 차가운 송아지는 수동면역부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으므로 즉시 냉동초유를 보충해줘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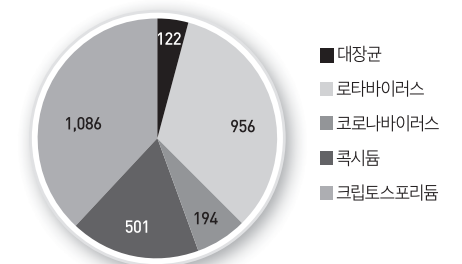
1. 송아지 설사병의 원인, 발생 및 예방 관리요령

설사는 일반적으로 갓 태어난 신생 송아지에게 영향을 미치며, 어린 송아지는 우유, 체내 수분 함량, 장내 특정 연령별 전염병 원인체에 대한 감수성으로 인해 설사에 더 취약할 수 있다. 송아지 설사는 높은 폐사율(1주령이내 12.8%, 1주령 이상 5.1%)과 성장률 저하를 초래하므로 한우 송아지에서 매우 흔하고 치료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설사는 장을 둘러싸고 있는 세포가 손상되어 영양소 흡수가 감소하고 체액 손실이 증가하여 발생한다.

설사의 원인은 바이러스(로타바이러스, 코로나바이러스), 기생충(크립토스포리디움, 콕시듐 등), 박테리아(대장균, 살모넬라) 및 영양성으로 혼합 감염이 일반적이며, 크립토스포리디움으로 인한 설사병 전파를 차단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난모낭(난모세포, oocyst)의 배설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7일간 지속적으로 항원충제 등으로 치료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 송아지 일령에 따른 설사병의 증상과 발생가능한 원인체

송아지 일령	임상 증상	발생 가능한 질병(원인체)
1~5일령	급성, 황/백색 수양성변	대장균
1~2주령 (5~14일령)	심한 설사	로타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5~21일령	간헐적인 설사, 인수공통전염병	크립토스포리디움
모든 일령	고열, 혈변, 폐사, 인수공통전염병	살모넬라균
18일 이상	혈변/점액성 설사	콕시듐



송아지 설사병의 원인체 분포도
(Villarreal, 2012)

송아지 설사병의 주요 증상

- 수양성변 - 더러운 꼬리
- 탈수 - 눈이 침침하고 피부 텐트가 느려진다(2초 이상)
- 침울 - 머리가 아래로 향하고 귀가 아래로 향하고 오래 서 있기를 꺼린다.
- 허약 - 걸리기 쉽고 걸을 때 불안정 열이 나거나 말기 질병이다.
- 차가운 사지(귀와 다리)와 포유력 약함 - 심각한 질병을 나타낸다.
- 빠르게 나쁜 호흡 - 대사성 산성증이 있는 동물은 혈액 내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 빠르게 호흡하는데, 부분적으로 산성증을 교정 즉 보충하며, 빠른 호흡은 폐렴의 증상과 혼동될 수 있다. 질병의 말기 단계인 폐사에 가까워질수록 송아지는 더 천천히 더 깊게 숨을 쉴 것이다.



2. 송아지 설사병 발생 시 주의 사항과 처치요령

전해질을 우유와 섞지 말아야 하는 데, 이는 우유가 산이나 효소에 의하여 응고된 현상인 응유(커드) 형성을 방해하고 소화 장애로 인한 설사를 일으켜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

송아지 설사병 발병 시 시료인 분변을 채취하여 진단키트를 이용한 원인체 동정 후 면역증강제와 감수성 높은 항생제 등을 처치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크립토스포리듐종의 설사병은 2주령이내의 송아지에서 발생하고, 탈수(안구함몰)은 가벼우나, 혈중 중탄산의 저하(대사성 산성증)에 의한 침울, 혼수, 기립부전, 걸어다니는 것이 휘청휘청하는 등이 심하게 나타난다. 콕시듐종 설사병은 3개월령 이상의 송아지에 발생하고 혈양의 연변, 진흙양의 변이 특징이고, 만성이 되면 노책(배에 힘을 주는 것)의 증상을 보이며 발육불량으로 되므로 초유의 조기 급여 권장, 우사 진입시 전용장화 착용과 설사 분변위에 생석회 등을 이용한 소독이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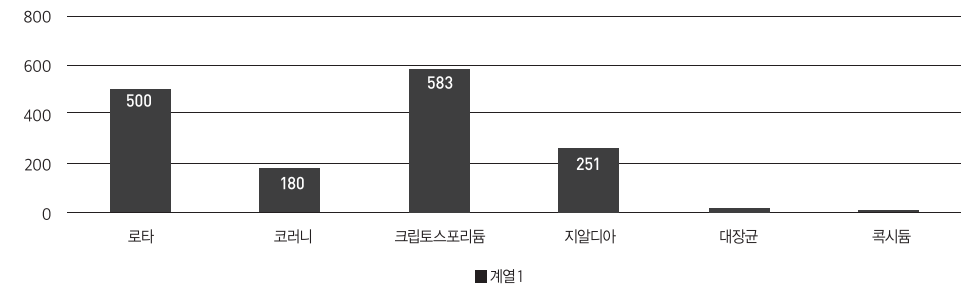
◆ 송아지 설사병 발생 시 탈수에 따른 증상과 처치

탈수 [%]	산성증 정도	안구함몰	피부 텐트(초)	점막	임상증상	수액요법
0~4	1	정상/약간	1~4	젖어 있음	밝고 기민, 강한 포유력, 따뜻한 입, 기침 없음	아무런 조치를 안하거나 경구투여(전해질)
5~8	2	안구와 안와사이 약간 분리	5~10	점착성	기립하거나 조용히 앉아 있음, 약한 포유력, 가까이 가면 걸음	전해질 경구투여
9~10	2	안구와 안와사이 0.5cm 분리	10~15	점착성	침울, 기립부전, 포유력 없음, 차거운 입, 쉽게 기침함	수액공급 필요
11+	4	안구와 안와사이 0.5~1.0cm 분리	15초 이상	건조	무기력, 빈사(거의 죽게 되는 현상), 황와, 포유력 없음, 매우 차거운 입	수액공급 필요



3. 국내 송아지 설사병의 원인체 진단 결과 분석

2020년 2월부터 필자가 국내 9개도 168개 농장을 진단한 결과 사육 한우 및 젖소 송아지 총 1,521두에서 송아지 설사병이 발생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시료(검체)에서 진단한 원인체는 크립토스포리듐이 538(38%), 로타바이러스가 500(33%), 지알디아 251(17%), 코로나바이러스 180(12%), 대장균 5, 콕시듐 1건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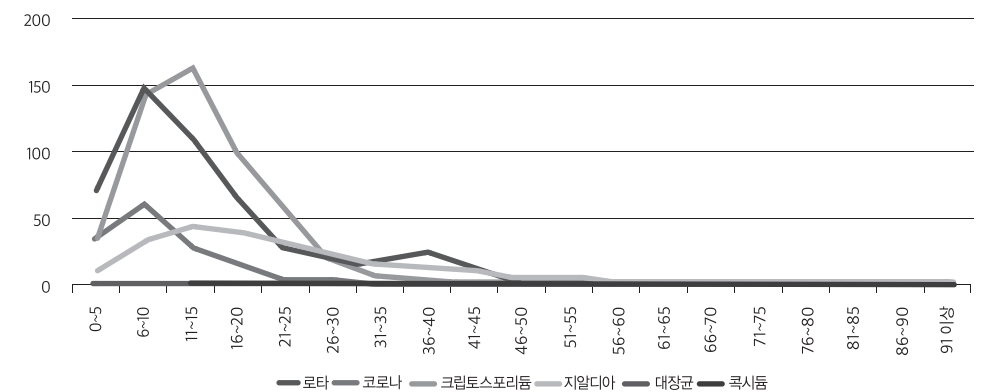


송아지 설사병 원인체별 발생건수

총 1,870두의 송아지 설사병에서 1,694개의 시료(검체)에서 월별로 진단된 건수를 분석한 결과, 바이러스성 설사병인 로타바이러스와 코로나바이러스는 3월, 4월, 5월(봄), 11월(가을), 12월, 1월, 2월(겨울)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원충성은 3월, 4월, 5월, 11월, 12월에 다발하는 경향을 보이나, 6월, 7월, 8월(여름)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1,486건의 진단된 시료(검체)에서 일령별로 진단된 건수를 분석한 결과, 바이러스성 설사병인 로타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와 원충성인 크립토스포리듐은 0~30일령이내에 다발되었으며, 원충성인 지알디아는 0~45일령에 다발하는 경향치를 나타냈다.

추운 겨울철 한우 신생 송아지에 다발하는 설사병이 국내외를 막론하고 크립토스포리듐(=와 포자충), 로타바이러스, 지알디아(=편모충) 및 콕시듐종 설사가 다발하는 것은 한우를 키우는 장소인 우사의 환경이 오염됐다는 것을 방증하며, 특히 1개월 이내에 다발하는 추세에 발빠르게 대응해 보온 및 환기 등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철저히 대비할 것을 당부드린다.



일령별 송아지 설사병 원인체 분포도

전문가 칼럼



김병숙
한국종축개량협회
경기인천지역본부장

한우산업 위기 개량사업은 계속되어야 한다

1) 머리말

2023년 계묘년 새해가 밝았다. 올해 뉴스를 통해서 본 경제 전망은 우울하기만 하다. 작년 하반기부터 지속적으로 한우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 고금리로 농가의 불안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최근 한우고기값은 kg당 19천원대가 무너지고 송아지 가격도 암송아지는 200만원 아래로 떨어지고 있어, 농가의 경영 상태는 크게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2년 전부터 사육두수 증가에 따른 공급과잉으로 경락가격 하락을 예상하여 선제적인 대응으로 저능력우 암소 도태사업을 전국한우협회와 농협중앙회에서 추진하였으나, 농가의 호응을 이끌어 내지 못했으며 그 효과 또한 미미했다. 한우산업이 현재 당면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급변하는 국제 환경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한우농가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해야 할까? 여러 방안들이 있겠지만, 본지에서는 한우개량 사업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방향과 그 효과들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조금이나마 농가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표 1] 한우사육두수 현황

구분	2020 4/4	2021 4/4	2022 3/4 사육두수			
	사육두수	사육두수	합계	1세 미만	1~2세	2세 이상
합계	3,227,181	3,415,332	3,544,413	993,908	984,697	1,565,808
암컷	2,064,498	2,178,118	2,245,142	482,445	478,995	1,283,702
수컷	1,162,683	1,237,214	1,299,271	511,463	505,702	282,106

※ 자료출처: 통계청

2) 본론

① 혈통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

개량의 기초단계인 혈통등록을 통한 경제적인 효과는 어떻게 나타날까? <표 2>은 최근 3년간 한우 거세우 등록우와 미등록우 1,246,216두의 도축성적을 분석한 결과이다. 2021년 기준으로 혈통등록우의 두당 평균 경락가격은 10,334천원으로 미등록우의 두당 평균 경락가격 9,859천원과 비교 시 혈통등록우가 475천원 더 높은 가격을 받았다. 연간 30두 출하 농가 기준으로 혈통등록과 미등록우의 소득차이를 환산해 보면 14,250천원의 차이가 나타났다. 혈통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혈통관리를 통한 근친회피와 계획교배는 농가소득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2] 혈통등록우와 미등록우 도축성적(거세우)

연도	도축두수(두)		도체중(kg)		등지방두께(mm)	
	등록우	미등록우	등록우	미등록우	등록우	미등록우
2019년	314,818	98,601	448.5±54.1	435.8±56.1	13.8±5.0	13.8±5.3
2020년	298,586	107,200	450.6±53.6	438.4±53.8	13.6±5.1	13.4±4.1
2021년	337,705	89,306	456.3±56.9	444.3±57.3	13.3±4.9	13.1±5.0

연도	등심단면적(cm ²)		근내지방도(No)		경락가격(원/kg)	
	등록우	미등록우	등록우	미등록우	등록우	미등록우
2019년	95.5±12.6	93.2±12.7	6.0±1.9	5.6±2.0	19,149	18,662
2020년	95.5±12.5	93.5±12.7	6.0±1.9	5.6±1.9	21,096	20,884
2021년	95.9±12.8	93.7±12.7	6.0±1.9	5.7±2.0	22,648	22,189

※ 자료: 한국종축개량협회(혈통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2019~2021년 도체성적 및 경락가격)

한우 고급육 생산 통한 차별화만이 살길 한우산업 경쟁력=꾸준한 개량 실천으로

② 한우선형심사를 통한 암소의 선발과 도태

한우선형심사는 정부로부터 일부 지원을 받지만, 대부분 지자체의 예산지원으로 추진되고 있다. 연간 18만여두의 개체들이 선형심사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사업량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선형심사를 통한 농가의 소득증대효과와 개량의 효과도 살펴보고자 한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심사받은 개체의 후대축 도축성적(거세우)을 점수대별로 분석해 보았다. <표 3>에서와 같이 심사점수가 높은 개체일수록 후대축의 도체성적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등록의 기준이 되는 80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우수한 개체의 선발 및 확보가 농가의 소득향상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자. 단순히 도체중만으로 경락가격을 산출해보면('21년 kg당 평균단가 : 22,557원), 80점 이상 후대축(456.62kg×22,557원=10,300천원)은 80점미만 후대축(445.22kg×22,557원=10,043천원)과 257천원 차이를 나타내었다. 선형심사를 통한 암소 우군 상향평준화로, 농가경쟁력 상승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③ 개량의 최종산물 확인하는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

한우고기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개량의 성과를 확인·평가하여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매년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가 개최되고 있다. <표 4>는 대회 출품축 성적과 전국 거세우 평균성적을 비교한 자료다. 2022년 기준으로 대회 출품축 경락가격은 25,520원으로 전국 평균가격

[표 3] 선형심사 받은 개체의 후대축 도축성적(거세우)

구분	후대 도축두수	도체중(kg)	등심단면적(cm ²)	등지방두께(mm)	근내지방도(점)
80점 이상 200,317두	266,198	456.62	97.87	13.46	6.15
78~79점 91,642두	120,078	446.55	96.14	13.48	5.98
76~77점 34,251두	44,634	443.63	95.52	13.40	5.93
76점 미만 13,143두	17,018	440.02	95.03	13.29	5.90
계(평균) 339,353두	447,928	452.00	97.07	13.45	6.07

※자료출처 : 한국종축개량협회, 축산물품질평가원
선형심사를 받은 개체(339,353두)의 '18~'21년 도축된 후대축(거세우) 447,928두 분석

[표 4] 연도별 한우능력평가대회 출품우와 전국 거세우 평균성적 비교

회(연도)	대회 출품우 평균성적					전국 거세우 평균 성적				
	도체중(kg)	배최장근 단면적(cm ²)	등지방 두께(mm)	근내 지방도	경락가격(원)	도체중(kg)	배최장근 단면적(cm ²)	등지방 두께(mm)	근내 지방도	경락가격(원)
21('18)	485	105.8	13.39	6.9	20,329	444	93.5	14.0	5.8	18,663
22('19)	485	107.9	12.83	7.0	21,368	446	95.0	13.8	5.9	19,027
23('20)	494	108.9	13.38	7.3	23,875	447	95.0	13.5	5.9	21,092
24('21)	507	106.1	12.24	7.0	25,284	454	95.4	13.2	6.0	22,557
25('22)	515	111.0	12.00	7.4	25,520	459	96.7	12.8	6.1	21,429

※자료출처 : 한국종축개량협회, 축산물품질평가원

21,429원과 4,091원의 차이를 나타냈다. 특히 대통령상 수상축의 도축성적은 도체중 629kg, 등심단면적 145cm², 등지방두께 12mm, 근내지방도 9점으로 <표 4>의 출품우 평균성적 및 전국 평균성적과 비교해 봐도 월등하게 앞선다. kg당 단가 또한 130천원으로 81,770천원에 최종 낙찰되어 역대 최고가를 기록하였다.

3) 맺음말

지난 2021년 5월호 본지에 개량의 성과와 방법에 대하여 기고한 바 있으며, 저능력우 도태를 통한 선제적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사육두수 증가에 따른 공급과잉과 이로 인한 한우가격 하락 현상은 지속되고 있다. 반대로 인플레이션과 고금리, 국제곡물가격 상승 등의 이유로 생산비 부담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럴 때일수록 개량을 통한 한우고급육 생산이 더욱 중요하며 절실하다. 가격하락장에서 고급육은 그 가치가 상대적으로 쉽게 떨어지지 않지만, 중·저등급 상품의 하락폭은 더 심하기 때문이다. 한우 고급육 생산을 통한 차별화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다. 우리의 일상은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수시로 나타나는 불확실성이 높은 시대에 살고 있다. 사료가격 급등에 따른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대응방안을 찾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한우산업의 경쟁력은 개량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실천할 때 복리의 효과로 나타나는 것을 잊지 말아야한다. 개량은 농가의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하지만, 그 효과와 중요성은 매우 크다. 절대 소홀히 하지 말자.



컨설팅을 통한 신구의 조화

이 번호에서는 지속적인 컨설팅 참여를 통하여 신구의 조화를 이루고
성적향상도 이루어가는 전국한우협회 의성군지부의 사례를 들어보고자 한다.

의성군지부, 농가 스터디그룹 운영 개량-생산성 개선

의성군지부는 2020년부터 지속적으로 한우농가 종합컨설팅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매회차 적극적으로 스터디 그룹이 운영되고 있으며, 컨설팅 참여농가는 대부분 2세경영 체제로 변화하고 있는 농장들이었다.

이 번호에는 2021~22년 사업에 참여한 S농가 사례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하고자 한다. S농가는 50두 내외의 번식우를 사육하면서 25두 내외의 거세우와 경산우 비육을 실시하는 일관 농장으로 2021년 번식우사를 신축 후 2세경영 체계로 전환하고 있는 농장이었다.

신축우사의 영향으로 송아지 육성율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었으나 번식률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어 번식관리에 문제가 있음을 진단하였다.



◆ S농장 2020~2022년 번식률 및 육성율 비교

구분		2020년 성적(기초조사)	2021년 성적(4회차)	2022년 성적(7회차)
송아지 생산두수 / 가임암소수		45/50	49/50	52/54
송아지 (두)	암	22	24	24
	수	23	25	26
	폐사	0	0	0
	계 (현재 송아지 두수)	45	49	50
번식률 (%)		90%	98%	98%
육성율 (%)		100%	100%	100%



번식률에 있어 첫 번째 원인은 전체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BCS상황이라고 판단하여 BCS관리에 대한 기준과 실질적으로 번식기 상태를 확인하는 인공수정 및 임신감정 교육을 병행 하였다. 그리고 이에 병행하여 과학적으로 급여량을 설정하는 방안을 컨설팅 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농장 만의 BCS기준을 마련할 수 있었다.

비육성적에 있어서는 전국평균 성적이상을 달성하고 있었으나 사육기간이 다소 긴 상황이었 고 농장에서도 보다 높은 수준의 등급 출현율 을 바라는 상황이었다. 컨설팅 과정에서 집중 한 것은 육성단계의 강건한 반추위를 생성하 는 목표와 비육단계에서 전분섭취량을 극대화 시키는 목표와 이에 따른 입단음 현상 방지 대책에 대하여 집중하였다. 기본적으로 우리농 장의 경우 개량은 일정 수준에 올라와 있다고 판단하였다.

컨설팅 참여 1세대 사양관리 시각·노하우 공유 노력



◆ S농장 최근 5년 거세우 도체등급 판정결과 비교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평균
출하두수	12	22	20	26	13	93
도체중, kg	451	464	469	492	585	488.1
등지방두께, mm	12.5	12.0	11.5	13.3	13.9	12.6
배최장근단면적, cm ²	94.5	103.5	97.2	99.2	110.2	100.7
육량지수	65.1	65.7	62.0	61.3	61.1	62.9
근내지방도	6.1	6.2	6.3	7.0	7.2	6.6
육색	5.1	5.0	5.0	5.0	5.0	5.0
지방색	3.3	3.0	3.0	3.0	3.0	3.0
출하월령	28.2	30.0	33.3	32.7	28.2	31.0



〈임신진단 교육〉



〈영양상태에 따른 급여량 조정〉



〈뱃질 수분 및 급여량 체크〉



〈우사내 환기 점검〉



2세경영 체제로 변화하면서 세대 간 시각 확인-화합

우리농장에서 좋은 성적을 가져올 수 있었던 이유는 지부 전체의 관심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오래전부터 의성지부는 개량과 생산성 개선을 위한 선의의 경쟁이 이루어져 왔다고 할 수 있다. 과거 개량에 대한 전체적인 관심뿐 아니라 1세대도 컨설팅에 참여해 사양관리의 시각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시간을 지속적으로 가져가고 있으며 새로운 기술과 이론에 대해서도 배우고자 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 뿐 아니라 세대 간의 시각차를 확인 하면서 서로 화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리라 판단한다.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



우양태
법무법인 선우 변호사



우리 민법은 고의와 과실, 부주의 등에 의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힐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일부러 하는 생각이나 태도 또는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비롯된 잘못으로 인하여 법을 위반한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자는 그 손해를 물어 주어야(배상) 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의 요건

형법에서는 고의성을 쟁점으로 하지만, 민법에서는 손해의 보전에 주안점을 두기 때문에 주로 과실이 문제됩니다. 민법 제 750조의 불법행위 또한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목적으로 합니다.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1)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의 귀책사유가 존재하고 2)가해행위가 위법해야 하며 3)이 행위로 인한 피해와 손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손해배상 원칙은 '금전'

즉, 사람이 일부러 또는 부주의 등에 의한 잘못으로 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할 경우 그 손해를 금전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발생하게 한 손해에 대하여 그것을 보상하여 손해가 없는 상태로 하는 것을 손해배상이라고 하며, 재산상의 손해는 원칙적으로 금전(돈)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한 손해는 재산상의 손해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신체, 자유 또는 다른 사람의 품위(명예)를 훼손하거나 정신상 고통을 발생하게 한 자는 재산이외의 정신적인 손해도 배상할 책임이 있고(민법 제751조), 다른 사람의 생명에 손상을 발생하게 한 자는 피해자의 부모, 피해자의 자녀 및 피해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위법행위에 의하여 발생하는 정신적은 고통에 대한 손해를 지급할 책임이 있으며(민법 제752조), 위와 같이 법을 위반한 행위 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의 액수는(소위 위자료)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법원의 생각과 판단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미성년자 및 심신상실자의 가해는?

민법 제753조 및 제754조는 법을 위반한 행위의 책임이 있는지 등을 판단할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옳고 그름이나 좋고 나쁨을 구별하는 능력이 없거나 자기 생각을 전혀 결정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심신상실자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할 경우에는 그 손해 지급 책임을 지지 않지만, 민법 제 755조에서 법정보호자(감독할 부모 등)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지게 되는 의무가 있는 자는 미성년자 또는 심신상실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를 지급할 책임을 두고 있습니다.

태아, 고용관계, 인공 공작물 피해는?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자(회사 등)는 노동자(근로자)가 고용하는 자와 관련한 일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할 경우 고용하는 자 및 노동자를 감독하는 자 등은 그 손해를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6조) 인공적 작업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인 공작물(건물, 담, 도로, 다리 등)의 설치 또는 보호(보존)의 흠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그 공작물 점유자는 그 손해를 지급할 책임이 있고, 동물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도 동물 소유자 및 점유자는 그 손해를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8조 및 제759조) 한편 법을 위반하여 임신부에게 손해가 발생

하게 한 경우에는 임신부 뱃속에 있는 태아에게도 정신적인 손해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762조)

법률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간은?

위와 같은 불법행위 법을 위반한 행위로 발생하는 손해의 청구는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그 손해를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됩니다. 가해자의 불법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간을 경과할 경우에도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그러나,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그 밖의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안날로부터 3년 내지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의 기간은 중단되는 것으로, 미성년자는 성인이 된 후 가해자를 당사자로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재산적인 손해 및 정신적인 손해를 입었을 경우 위와 같은 손해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 등을 확인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 손해를 지급 받아야 할 것입니다.



2022 한우탄소중립 정책보고서

제4장. 한우장내발효와 온실가스

제5장. 한우가축분뇨 처리가 온실가스 발생에 미치는 영향 평가

제6장. 한우장내발효조절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및 중립화를 위한 기술적 대응

제4장

한우 장내 발효와 온실가스

한우 장내 발효가 온실가스 발생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 평가

- 2018년 기준 한우가 배출한 온실가스는 469만 톤으로, 전체의 0.64%로 환경오염에 미치는 영향은 타 산업에 비해 낮은 수준
- 농업분야에서의 메탄 발생은 벼재배 부문이 5.9백만톤으로 가장 많으며, 축산부문의 장내발효에 의한 메탄발생량이 4.6백만톤, 가축분뇨처리에 따른 발생량 1.4백만톤 순

한우장내발효가 온실가스에 미치는 영향

○ 한우의 메탄 배출계수

- 한우의 메탄 배출계수는 북미에서 산정한 47kg(두/년)를 젖소는 118kg(두/년)를 국가 통계에 기초한 가축두수를 곱하여 산정

$$E_i = EF_i \times P \times (Gg/10^6 kg)$$

E_i : 가축종에 따른 메탄 배출량(천톤CH₄/year)

EF_i : 가축종에 따른 배출계수 IPCC 기본값
(47kg CH₄/head/year)

P : 가축종에 따른 사육두수(head)

◆ 한육우, 젖소 발효에 의한 장내발효메탄 배출계수 산정량

(단위: kg 메탄/두/년)

구분			비육우배출계수 (kg 메탄/두/년)	젖소배출계수 (kg 메탄/두/년)
축종	IPCC*지침 (Tier1)	1996	47(북미기준, 성우)	118(미기준, 성우)
		2006	53(북미기준, 성우)	128(미기준, 성우)
		2019	64(북미기준, 성우)	138(미기준, 성우)
	국내 개발 값 (Tier2)		47(암소, 1세 미만)	139(암소 2세이상)
			61(수컷, 1세 이상)	83(암소1-2세)
			43(수컷, 1세 미만)	33(암소 1세미만)

○ 국내 배출계수의 개발 필요성

- 국내 메탄 배출계수가 없을 경우 IPCC가 제공하는 기본 배출계수를 적용해야 하므로 정확한 배출량 산정에 한계가 있음
- 국내 개발값을 Tier 2 값을 적용할 경우 젖소의 경우 2006년 IPCC지침을 적용할 때보다 약 15% 낮게 산정되며, 한우의 장내 발효 메탄 계수를 적용할 때도 2009년 IPCC 지침을 적용할 때보다 약 23% 낮게 산정됨
- 국내 한육우의 메탄가스 배출량을 보다 정확하게 산출하기 위해서는 향후

한우 1세 이상의 암소와 2세 이상의 암소와 수소의 국내 고유의 메탄 배출계수의 개발을 통해 적용할 필요가 있음

○ 한우의 장내발효 메탄 배출량

- 한우 장내발효 메탄은 국내 개발 값에 의하면 연간 수컷 61kg/두/년, 암소는 47kg/두/년으로 약 4.144백만톤CO₂eq의 발생량 추정



◆ 2022년 국내 한육우 장내발효배출계수에 의한 장내발효 메탄배출량

(단위: 천톤 CO₂eq)

구분	사육두수	메탄배출계수	온실가스기여도	총 배출량
1 세 미 만 (암)	474,456	47	21	468
1 세 미 만 (수)	575,983	43	21	525
1 세 이 상 (암 수)	2,459,615	61	21	3,151
총 합 계	3,510,054			4,144

제5장

한우 가축분뇨 처리가 온실가스 발생에 미치는 영향 평가

가축분뇨 발생량 및 처리현황

- 2020년 기준 연간 연간 약 5,194만 톤의 가축분뇨가 발생되고 있으며, 이중 한육우는 32.2%(1,673만 톤) 차지



가축분뇨처리부문 온실가스배출 현황

◆ 가축분뇨처리 부문 온실가스 배출현황(환경부 온실가스정보센터, 2022)

구분		온실가스 배출현황				'90년 대비 증감률
		1990	2000	2010	2019	
		천톤-CO ₂ eq./년				
젖 소		816	884	711	640	-21.6
한 육 우		1,004	1,100	1,822	1,939	93.1
면 양		0.4	0.1	0.5	0.3	-25.0
산 양		66	195	99	197	198.5
말		2	4	12	11	450.0
돼 지		590	1,090	1,314	1,277	116.4
가 금 류		349	542	816	822	135.5
기 타 가 축		18	56	29	11	-38.9
소 계		2,846	3,871	4,803	4,897	72.1

자료 : 2021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2022)

온실가스배출 산정기준에 따른 한육우

배출량 영향

- 아산화질소 배출량 산정 방법 및 기준
 - 2021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에서는 가축분뇨처리 과정에서 배출되는 아산화질소(N₂O)의 배출량 산정 시 Tier1 방법을 이용
 - 가축분뇨처리 부문 N₂O 배출계수 선정 시,

젖소와 한육우는 북미지역 기준을, 돼지는 서유럽 기준, 닭과 오리 등의 가금류는 선진국 기준, 염소를 비롯한 기타 가축은 개발도상국의 기본값을 사용

- 한육우는 1996 IPCC GL에서 70kg(N/두/년)이었으나 2006 IPCC GL에서는 44kg(N/두/년)으로 약 37% 감소

◆ 축종별 질소 배설량(IPCC) 및 기준

(단위 : kgN/두/년)

	1966 IPCC	2006 IPCC	기준
유 우	100	97	북미[한대]
한육우(유우 외 소)	70	44	북미[한대]
비 육 돈	20	9.3	서유럽[한대]
종 돈		30.4	서유럽[한대]
산 란 계	0.6	0.36	서유럽[한대]
육 계			서유럽[한대]
오 리	0.6	0.82	아시아[개발도상국]

자료 : 1996 IPCC GL, 2006 IPCC GL

한우 가축분뇨처리가 온실가스 발생에 미치는 영향

- 정부의 탄소중립 추진전략
 - 농식품부에서 발표한 탄소중립 추진 전략 중 한육우 가축분뇨처리와 관련도가 높은 주요 사항은 퇴비의 비농업계 이용과 가축분뇨 에너지화를 확대하는 내용
 - 가축분뇨를 활용한 바이오차(Bio-char), 바이오플라스틱 등 산업용 소재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22, 가축분뇨법 개정)

- 분뇨처리(단순 저장, 퇴비화, 혐기소화) 방법에 따른 영향
 - 2019 IPCC GL에서는 고형분뇨를 저장하는 방법 및 퇴비화하는 방법에 따라 메탄전환계수를 제시하고 있음
- 바이오차 생산에 따른 영향
 - 건물(Dry matter) 기준으로 우분 1톤을 열분해(Gasification)해 바이오차를 생산할 경우 643kg(CO₂-eq.)의 온실가스를 줄여줄 수 있음



◆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한육우 가축분뇨처리시설 관련)

과제별	단기('21~'30)	중기(~'40)	장기(~'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 참여 대상 확대 반입 원료 다양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농업 단지 인근 에너지화 시설 유치 폐열 등 공급체계 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축분뇨 발생량의 10% 에너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축분뇨를 이용한 바이오차 생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바이오차 생산시설 조성 사업 추진(~'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바이오차 생산시설 5개소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바이오차 생산시설 10개소 조성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021

제6장

한우 한우 장내 발효조절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및
중립화를 위한 기술적 대응

반추위메탄생성경로 및 국내외 주요 정책동향

- 메탄생성 경로
 - 반추위 내 미생물 세포수는 인간의 40~500배 정도이며, 메탄을 생성하는 고세균류는 107~109cells/ml로 알려져 있음
 - 반추위 내 메탄생성은 3가지 경로에 의하며, hydrogenotrophic 메탄생성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 이는 다른 메탄생성경로보다 미생물의 성장 속도와 세포수율이 높기 때문
 - 메탄 감축량은 사료급여량과 품종간의 분석을 통해 감축량을 고려해야 하며, 또한 메탄 감축을 위해서는 어린 단계의 장내 미생물 군총의 조절을 통한 감축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호주의 정책동향
 - 국가 가축메탄프로그램(NLMP)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운영되었으며 가축의 생산성을 높이고 장내 메탄 생성을 줄일 수 있는 기술을 얻기 위한 기초연구 분야를 포함
 - NLMP의 주요 목표는 가축의 메탄 배출을 줄이기 위한 실용적인 농장개발, 생산성을 높이는 동시에 달성 가능한 저감 수준의 수량화 등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근거 제공

- 주요 5개 주제는 ①메탄측정방법, ②유전적 개량, ③사료 첨가제 개발, ④조사료, ⑤반추위 미생물 조절 분야로 구분
- 일본의 정책동향
 - 농림수산성 지원으로 2030년까지 농가단위에서 26%의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는 소의 유전적 개량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저메탄 발생 소의 특성 규명 및 저메탄 발생 소를 선발하기 위한 연구
 - 특히 범정부차원의 대폭적인 지원으로 진행하고 있는 ‘Moonshot’ 프로그램은 반추동물 메탄저감 분야에 10가지 연구과제를 수행 중
 - 본 연구수행성공을 통해 반추가축의 메탄저감율을 80% 높이고 가축의 생산성을 10% 향상시키는 목표를 설정
 - 주요 연구내용으로는 캐슈넛추출물 및 홍조류를 이용한 메탄저감제 개발 및 보급, 저메탄 발생 개체 선발육종, 메탄발생모니터링을 위한 반추위 발효양상 측정기술개발, 개체별 최적의 사료급여시스템 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진행 중

- 국내 정책동향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속가능한 축산을 위해 사료속의 잉여 질소를 감축하여 악취 및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방향을 설정 2030년까지 축산농가에 30%

의 메탄 저감제를 보급할 계획을 수립
- 축산분야에서는 저메탄사료 보급, 저단백사료 개발, 가축분뇨에너지 시설 확충, 바이오차 생산, 축산생산성 향상을 통한 감축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음

◆ 주요 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구분(천톤 CO2eq)			2030년		2040년		2050년	
			목표치	감축량	목표치	감축량	목표치	감축량
장내 발효	지표	소계		751		915		1,075
		저메탄사료보급	30	121	65	261	100	402
		분뇨 내 질소 저감(%)	13.2	630	13.2	654	13.2	673
	수단	저메탄사료 저단백사료	- 2세이상 한우, 젖소 저메탄사료보급 30%. - 조단백함량 2%감축		- 2세이상 한우, 젖소 저메탄사료보급 65%. - 조단백함량 2%감축		- 2세이상 한우, 젖소 저메탄사료보급 100%. - 조단백함량 2%감축	
가축 분뇨	지표	비농업계이동 (에너지화,정화)	33	2,058	34	2,212	35	2,355
	수단	가축분뇨에너지화시설확충 분뇨이용 바이오차 생산	- 지역주민 이익공유 방안 마련 - 바이오차, 고체연료, 퇴비 수출 등		- 에너지수요처 인근 시설 확충 - 바이오차, 고체연료, 퇴비 수출 등		- 가축 분뇨 발생량 10% 에너지화 - 바이오차, 고체연료, 퇴비 수출 등	
생산성 향상	지표	소계		452		649		1,773
		식단변화가축 감소율(%)	-	-	-	-	10.2	995
		축산생산성향상 (스마트축사보급율)	30	389	40	507	50	579
		대체식품(%)	4.4	63	9.7	142	15	200
	수단	식생활소비개선 저탄소미래형식자재 공급구축	- 전문 인력 양성 교육기관 지정 - 대체식품 소재 발굴 및 기술개발		- 우수체험 공간지정 및 교육확대 - 대체식품 소재상품화 및 시장형성		- 체험 공간 및 교육지속 확대 - 대체식품 시장 고도화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 탄소중립추진전략, 2021.12.22

장내 발효조절을 통한 메탄저감 방안

- 반추위 내 수소 조절을 통한 한우 메탄 조절
- 한우의 생산성 향상과 비육기간 단축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 장내발효에서의 메탄저감제 활용
- 정밀사양 관리 및 사료배합프로그램 조절
- 기후환경변화 교육 및 한우농가 컨설팅

토정비결 유래와 의미

구한말 후 연초 ‘신수점’에 토정비결 활용



우리 민속명절인 설날의 풍속 가운데 하나가 한 해의 신수(身數·운수)를 미리 알기 위해 점을 보는 것이었다. 새마을운동과 경제개발이 본격도에 오르기 전까지만 해도 정월에 시골의 경우, 마을에서 글쭉개나 읽은 사람의 집에 모여 ‘토정비결(土亭秘訣)’로 한 해의 운수를 점쳤다. 1970년대 이후에는 도시의 거리마다 토정비결을 봐주는 점복사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했지만, 최근 들어 신수점의 풍속은 점점 사라져 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출처: 한국민속대백과사전, 매일경제, 뉴스스

길흉화복 점치는 민간역학 결실

토정비결은 조선 중기 학자인 토정 이지함(1517~1578)의 저술로 알려져 있지만 근거는 없다. 세시풍속을 기록한 유득공의 ‘경도잡지(京都雜志)’와 홍석모의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 등 18세기 말과 19세기 중반 완성된 자료에도 등장하지 않기 때문이다.

‘동국세시기’(1849)에 오행점(五行占)으로 한 해의 신수를 본다고 기록돼 있어 토정비결의 등장이나 정초에 토정비결을 보는 세시풍속 모두 구한말 이후인 것으로 보인다. 민간에서 한 해의 신수를 보는 신수점의 경우 조선 중기 이래로 율점이 유행하다가 후기로 오면서 오행점이, 말기에 토정비결이 각각 등장했다는 게 학계의 일반적인 견해다.

‘귀인의 도움을 받는다’거나 ‘구설수를 조심하라’는 등 개인의 길흉화복을 주로 보는 토정비결과 율점 등은 조선의 대표적인 잡점이자 민간역학의 결실이다.

사주 가운데 생시를 제외하고 생년월일만으로 3괘(卦)를 만들며 48괘만 사용한다. 열두 달 매월 운수풀이가 나오는 지금과 같은 형태의 토정비결은 광복 이후 출간됐다.





직장인 절반이상 '심리적 안정'위해 본다

직장인 10명 중 6명은 새해를 맞이해 신년운세를 봤거나 볼 계획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생활밀착형 일자리 정보 제공기업 벼룩시장구인구직이 최근 직장인 726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9.8%가 새해를 맞아 신년운세를 봤거나 볼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신년운세는 남성(54.5%) 보다는 여성(62.0%)이 더 많이 본다고 답했고 연령별로는 40대(64.1%)가 신년운세를 가장 많이 보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20대, 30대, 40대의 경우 신년운세를 본다고 답변한 응답자가 많았던 반면 50대 이상의 응답자들은 신년운세를 볼 계획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가 더 많았다. 그렇다면 직장인들은 신년운세를 볼 때 주로 무엇을 물어볼까.

장기화되고 있는 경기 불황으로 직장인들은 '채테크 등 금전문제(36.6%)'를 가장 궁금해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승진 등 직장생활(17.5%)', '이직 등 직장 진로(15.7%)', '연애, 결혼(12.7%)', '건강(8.5%)', '가족(5.3%)', '임신, 출산(3.7%)'에 대한 상담을 받고 싶다고 답했다. 특히 최근들어 경기 불황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온·오프라인으로 점집을 찾고 있는 젊은 세대들이 늘고 있다.

알바천국이 지난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MZ세대(밀레니얼+Z세대) 10명 중 9명이 '운세를 본 적 있다'고 답했다. 대다수의 젊은 층이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운세를 본 경험이 있는 셈이다.

운세를 보는 이유는 ▲막연한 호기심(42.7%) ▲불안한 미래에 위안을 얻기 위해(22.9%) ▲스트레스와 고민을 덜기 위해(13.2%) 등으로 조사됐다.

조언은 참고하되 집착·자만은 금물

토정비결은 십간(十干) 십이지(十二支)의 태세(太歲), 월건(月建), 일진(日辰) 등을 따지고 주역(周易)의 음양설에 기초해 144개의 괘(卦)를 만들어 누구나 생년월일만으로 간단하게 일년 열두달의 길흉화복을 점칠 수 있게 정리한 책이다. 토정비결에 담긴 내용이 정확히 맞았기 보다는 당시 백성들이 새해를 맞아 새로운 희망을 품고 흉한 징조를 피하고자 한 심중을 토정비결이 꿰뚫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자신의 신년운세와 토정비결에 나타난 내용에 과도한 집착은 안 하느니만 못한 것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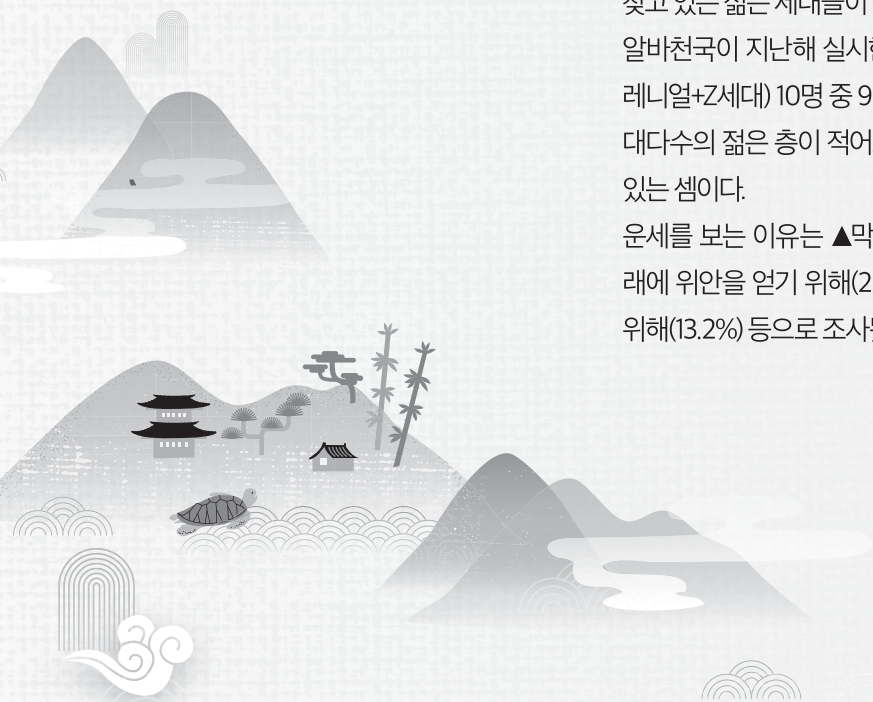
한 역술가는 "새해가 시작되면 미래에 대해 궁금하거나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자신의 앞날을 내다보고자 유명한 철학관이나 철학원을 찾게 된다"며 "그러나 점술가의 조언은 참고하되 너무 집착 또는 자만하거나, 포기하는 등 중용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운세 앱·SNS 찾는 젊은층 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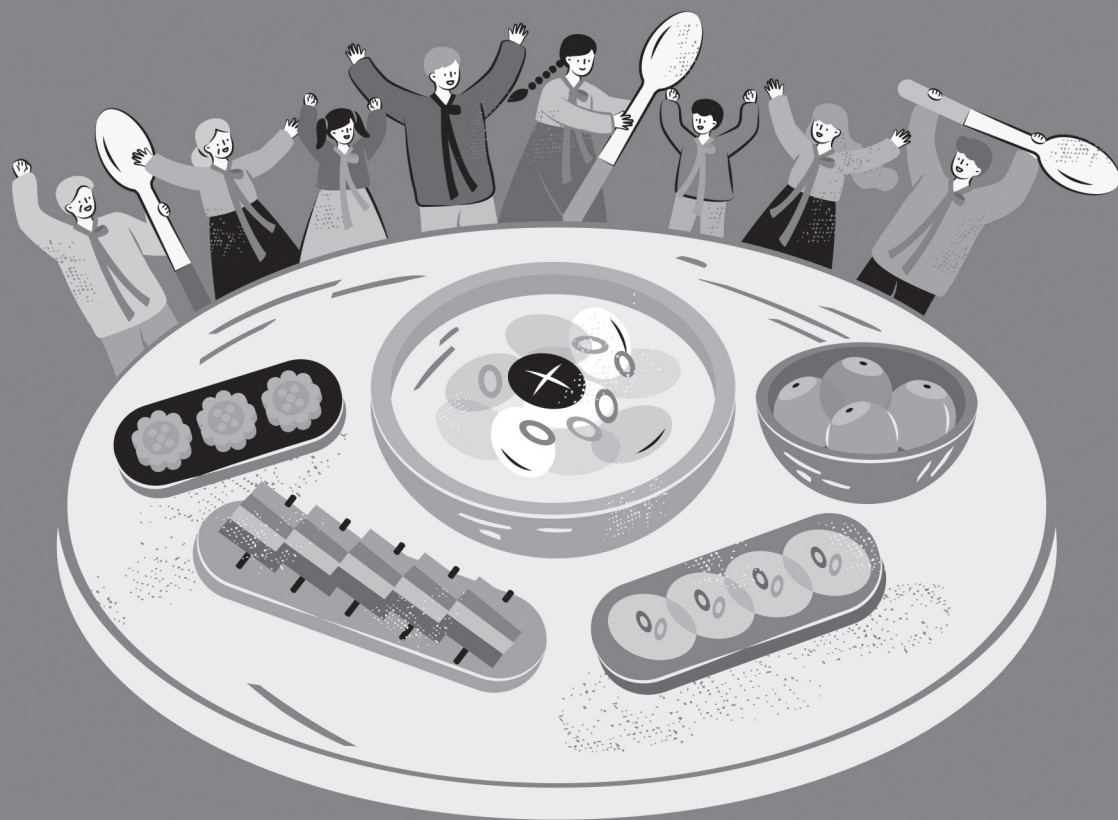
코로나19 이후 비대면으로 사주를 보는 사람도 늘고 있다. 앱이나 전화, 유튜브 등을 통해 타로나 운세를 볼 수 있다. 그중 전화 사주는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부담없는 금액으로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 최근 여러 역술인을 비교할 수 있는 플랫폼이 등장해 정보 비대칭 문제가 사라졌다. 주변 지인의 입소문만으로 점집을 선택했던 과거와 달리 수천 개의 댓글과 리뷰 영상을 참고할 수 있게 됐다. '무료 맛보기 상담' 등 선택에 참고할 수 있는 정보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운세 앱은 자신의 생년월일을 등록하면 앱에 접속할 때마다 운세를 확인할 수 있다. 유튜브를 통해 매달 타로점을 볼 수 있는 영상들도 인기다. 타로점은 타로리스트가 카드를 뽑아 5개의 키워드를 만들어 시청자가 카드 번호를 선택하면 그에 맞는 풀이를 해준다. 시청자들이 쉽고,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영상을 본 시청자들은 "정말 원하던 부분에 대한 답이 나와서 불안했던 마음도 한결 가벼워지고 내년이 기대됩니다." "21년, 22년 심신이 너무나 힘든 해였는데 올해는 (선택한) 카드 흐름대로 천운이 오길 기대해 봅니다. 영상으로도 힘이 납니다"라는 반응을 남겼다.



세계 각국 설날음식



새해맞이에 들뜬 지구촌 이웃나라에서는 어떤 음식을 먹을까?

각 나라마다 새해를 맞는 풍경은 약간씩 다르지만 한 해 행운을 기원하면서 가족들과 음식을 나눠 먹는 풍경은 비슷하다. 우리나라는 새해 첫날 떡국을 먹는다. 문헌에 따로 기록된 것은 없지만 설날 아침에 떡국을 먹는 것은 희고 긴 떡가래처럼 한해 건강하고 장수하라는 의미라고 한다. 가래떡은 동전과 비슷해 1년 간 재화가 풍성하기를 바라는 마음도 담겨져 있다. 세계 각국의 명절식탁은 어떤지 살펴보자.

출처 : 브릿지경제, 제민일보, 중부일보, 네이버지식백과

우리나라, 새해 아침 떡국먹는 풍습
희고 긴 떡가래처럼 건강-장수 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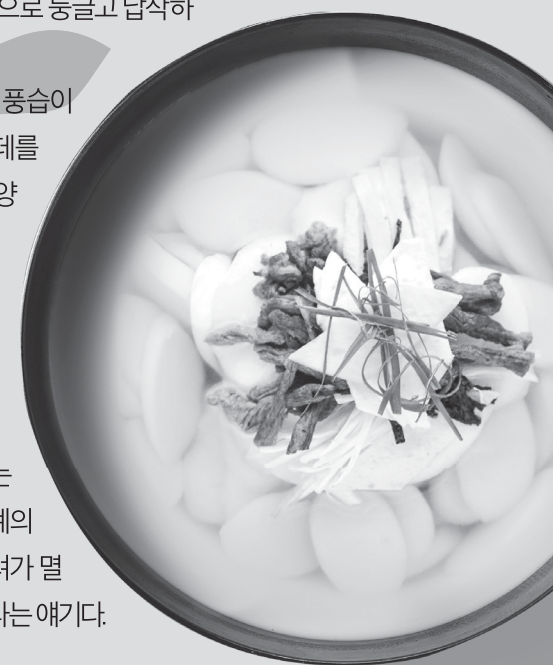
우리나라에서는 새해 아침에 가족들이 모여 떡국을 먹는다. 설날 떡국을 먹는 것은 흰 가래떡에 한 해를 시작하는 시간의 경건함이 담겨 있다는 생각에서였다. 맑은장국에 가래떡을 얇게 썰어 넣고 끓인 떡국은 대표적인 설날 음식이다. 우리는 나이를 한 살 더 먹었다는 뜻으로 '떡국 한 그릇 더 먹었다'고 말한다. 떡국은 쇠고기 양지머리를 고아서 만든 육수나 사골육수로 끓인다.

설날에 흰 떡을 끓여 먹는 것은 고대의 태양 숭배 신앙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한다. 설날은 새해의 첫날이므로 밝음의 표시로 흰색 떡을 사용한 것이고, 떡국 떡을 둥글게 하는 것은 둥근 태양을 의미한다. 가래떡의 모양에도 각별한 의미가 있다. 시루에 찌는 떡을 길게 늘려 가래로 뽑는 것은 재산이 쭉쭉 늘어나라는 축복의 의미를 담고 있다. 가래떡을 둥글게 써는 이유 역시 둥근 모양이 엽전(예전에 사용하던 낚시로 만든 돈으로 둥글고 납작하며 가운데 네모진 구멍이 있다)의 모양과 같기 때문이다.

특이하게 개성지방에서는 조롱박 모양의 조랭이떡국을 끓여 먹는 풍습이 전해져 온다. 조랭이떡은 가래떡을 가늘게 늘여서 써는데, 가운데를 대나무 칼로 살짝 굴러 마치 동그란 구슬을 붙여 놓은 것 같은 모양이다. 떡이 새하얀 것이 눈사람처럼 보이기도 한다. 일반 떡국에 비해 떡이 퍼지지도 않고 훨씬 쫄득하다.

조랭이떡국에는 각별한 의미가 있다. 일설에는 누에가 '길'함을 뜻하므로 한 해 운수가 길하기를 기원하며 누에고치 모양으로 빚었다고 한다. 또한 아이들이 설빔에 조롱박을 달고 다니면 액막이를 한다는 속설에 따라 액막이의 뜻으로 '조롱떡국'을 끓여 먹었다는 것이다. 일설에는 대나무 칼로 떡을 누르는 것이 조선 태조 이성계의 목을 조르는 것을 상징한다고 한다. 개성(송도)을 수도로 했던 고려가 멸망하자 그 원한을 조랭이떡을 만들면서 풀려고 한데서 기원한 것이라는 얘기도.

한우떡국



꿩 대신 닭- 설날 음식에 얽힌 속담 중에 '꿩 대신 닭'이라는 속담이 있다. 이는 바로 '떡국'에서 유래된 것이다. '동국세시기'에 의하면 떡국에는 흰떡과 쇠고기, 꿩고기가 쓰였으나, 꿩을 구하기가 힘들면 대신 닭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여기서 '꿩 대신 닭'이라는 말이 생겨났다고 전해진다.



귀에 걸린 동상 치료용에서 송구영신 음식으로

중국에서 설날(춘제, 春節)은 1년 중 가장 큰 명절이다. 중국인들은 새해가 되면 물만두인 '자오쯔'(餃子, Jiaozi, 교자)를 먹는다. 얇게 민 밀가루에 대추, 배추, 땅콩, 고기, 채소 등을 넣고 반달 모양으로 빚는다. 끓는 물에 만두를 넣고 찬물을 세 번 정도 넣어가며 삶고 간장소스를 곁들여 먹으면 된다. 중국 동한 말기(220년 경) 의사였던 장중경이 사람들의 귀에 걸린 동상을 치료하기 위해 만든 음식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치료 목적이 아닌 '송구영신'(送舊迎新,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다)의 의미로 선달 그믐(음력 12월 31일)에 자오쯔를 빚어 새해가 되면 먹는다. '니엔가오'(年餅 Nian Gao)도 중국인들이 즐겨 먹는 새해 음식이다. 네모난 모양의 떡으로 황색과 흰색으로 구성된다.

자오쯔



미리 만든 조림요리로 양력설을 경건하게

일본은 음력설이 아닌 양력설을 쇠나. 일본인들은 양력 1월 1일부터 3일간 성대하게 신년을 축하하며 기념한다. 선달 그믐에는 '오오소오지'(大掃除)라고 부르는 대청소를 통해 집안을 말끔히 정리한다. 설날 연휴에는 특별한 요리를 하지 않는다. 신이 내방하는 기간에는 소음이나 냄새를 풍기지 않고 경건하게 보내는 풍습 때문이다. 대신 미리 만들어 놓은 '오세치'(お節)를 먹는다. 일반적으로 3~5단 찬함에 검은콩조림, 멸치조림, 찐새우, 연근조림, 밤조림, 다시마, 청어알조림 등을 담는다. 새우는 장수, 연근은 지혜, 밤은 재운, 청어알은 자손의 번성, 다시마는 행운 등을 의미한다.

오세치



크리스마스부터 새해까지 매일 민스파이 먹으며 행운기원

영국인들은 크리스마스부터 새해까지 '민스파이'(Mince pie)를 디저트로 먹는다. 크리스마스부터 12일간 매일 민스파이를 한 개씩 먹으면 새해에 행운이 온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민스파이는 '치웨트'(chewette)라는 파이의 일종으로 13세기 영국 십자군이 중동에서 돌아올 때 갖고 온 음식에서 유래했다. 민스파이의 민스(mince)는 파이의 속재료인 '민스미트'(mincemeat, 다진 고기)를 뜻한다. 과거에는 고기를 넣어 짭조름하면서 달콤한 맛을 냈지만 지금은 고기가 들어가지 않고 말린 과일, 시트러스, 견과류 등을 넣어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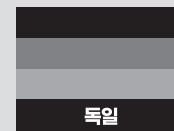
민스파이



새해 첫 일요일에 '왕의파이'로 불리는 '갈레트' 먹어

프랑스에서는 거위, 칠면조, 푸아그라 등을 고 샴페인을 마시며 새해를 축하한다. 프랑스인들은 '왕의 파이'로 불리는 '갈레트'(Galette)를 새해 첫 일요일에 먹는데 이는 예수의 탄생과 새해 시작을 축하하는 뜻을 담고 있다. 갈레트를 구울 때 반죽 안에 페브(feve)라는 작은 도자기 인형을 넣는다. 그 인형이 든 빵조각을 먹는 사람은 하루 동안 왕이 돼 특별한 대접을 받고 1년 내내 행운이 깃든다고 여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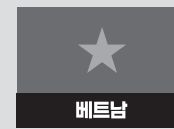
갈레트



겨자소스 넣은 도너츠는 불운...한해동안 조심해야

독일에서는 새해가 되면 행운을 상징하는 물건을 주변 사람들과 주고 받는다. 이때 교환하는 물건 중 하나가 귀여운 돼지 모양의 과자인 '마지팬 피그'(Marzipan pig)다. 마지팬은 아몬드와 설탕을 섞어 만든다. 독일인들은 잼이나 액체 형태로 속이 채워진 도너츠도 먹는다. 베를린에서는 '판쿠헨'(Pfannkuchen)이라 부르고 다른 지역에서는 '베를리너'(Berliner)라고 칭하기도 한다. 도너츠 안에 가끔 겨자소스를 넣는데, 이를 먹는 사람은 한해 불운하니 조심히 지내야 된다고 믿는다.

마지팬 피그



행운·부 의미하는 붉은색 봉투에 세뱃돈 선물

베트남에서는 행운을 상징하는 리본으로 장식한 새해음식 '반짱'을 먹는다. '반짱'은 베트남의 대표적인 전통음식이자 설 음식으로 찹쌀 속에 돼지고기와 녹두를 넣은 후 대나무 잎이나 바나나 잎으로 싸 만든 음식이다. 특히 가족들과 함께 '반짱'을 먹으면서 행운과 부를 의미하는 붉은색 봉투에 세뱃돈을 넣어 가족에게 전해준다.

반짱



콩·채소 등 부를 상징, 지역에 따라 진짜동전 넣기도

미국에서 대표적인 새해 음식으로는 '호핑존'(hopping john)이 있다. 과거 남부 지방의 가난한 노예들이 먹던 음식에서 유래했다. 남북전쟁을 계기로 미국 전역에서 먹게 됐다. 검은콩, 쌀, 돼지고기 등에 남는 야채를 몽땅 넣어 끓인다. 호핑존에 들어가는 음식은 모두 부를 상징한다. 콩은 동전을 의미하며 각종 채소는 지폐로 여긴다. 지역에 따라 진짜 동전을 넣는데, 호핑존을 먹다 동전을 발견하면 1년 내내 행운이 따른다고 믿는다.

호핑존



‘내 나이 작년 그대로’

2023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

2023년부터 만 나이가 도입되는 등 다양한 변화가 일어난다.

2023년 6월부터 기존의 한국식 나이 계산법 대신, 만 나이 제도가 도입된다. 새해 첫 아기의 나이는 1살이 아닌, 개월 수부터 시작한다. 1살이 시작되기 전 개월 수로 나이를 표시하다가, 태어난 지 만 12개월이 지나면 1살이 된다. 국민들의 나이도 만 나이 제도 도입으로 1~2살 씩 낮아질 전망이다. 2023년 계묘년에 달라지는 것들을 소개한다.

출처: 여성조선, 단디뉴스



만 나이 통일

2023년 6월부터 ‘한국식 나이’가 사라지고 ‘만 나이’로 통일된다. 만 나이 통일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내건 공약 중 하나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만 나이, 연 나이, 세는 나이 등 체계가 중구난방이었다. 만 나이는 생일 때마다 한 살씩 더하는 식이고, 연 나이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식이다. 취학 연령과 청소년 나이에 관해선 연 나이를 채택 중이다. 세는 나이는 태어남과 동시에 한 살이 되는, 다시 말하면 12월 31일에 태어난 아이는 하루 만에 두 살이 되는 식이다. 나이 계산 방식의 차이로 사회복지, 의료 등 행정서비스 적용이 혼선을 빚는 일이 적지 않았다. 일례로 백신 접종 대상자가 ‘18세 이하 연령’이라고 했을 때 ‘18세’가 만 나이인지, 한국 나이인지 논란이 있었다. 만 나이가 통용됨으로써 우리 모두 최대 두 살까지 어려워진다. 다만 한 살 미만일 때는 개월 수로 나이를 표시한다. 2022년 12월 7일에 태어났다면 2023년 12월 6일까지는 개월 수로 나이를 쓰고, 12월 7일부터 한 살이 되는 것이다.



오토바이 보험 가입 필수

무보험 오토바이의 운행이 불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 12월 장기간 의무보험 미가입 이륜차를 지자체가 직권으로 사용 폐지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고, 2022년 6월부터 시행했다. 지자체가 차량 소유자에게 의무보험 가입명령을 했는데, 가입명령을 미이행한 지 1년이 지나도 무보험 상태라면 차량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따라서 2023년 7월부터는 무보험 이륜차에 대한 사용 폐지가 이뤄진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가 운행 중 사고가 날 경우, 운전자는 교통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과 별도로 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를 내야 한다. 오토바이 운전자라면 책임보험 가입을 잊지 않아야 한다.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1월 1일부터 식재료 섭취 기간이 길어진다. ‘유통기한’이 도입된 이후 38년 만에 ‘소비기한’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유통기한은 말 그대로 식품을 유통할 수 있는 기한, 즉 판매가 가능한 날짜다.

유통기한은 판매자 중심의 기한이라 이후로도 섭취할 수 있으나, 대다수 소비자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은 버려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제품을 먹어도 안전한 기한이라 유통기한보다 길다.

예를 들어 두부는 유통기한 17일에서 소비기한 23일로, 빵류는 20일에서 31일로, 과채음료는 11일에서 20일로 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인 ‘품질안전한계기한’에 예상치 못한 품질 변화를 고려하기 위한 ‘안전계수’를 곱해 참고값을 정했다.

참고값은 식약처가 제시하는 잠정적인 소비기한으로, 업체는 이 참고값보다 짧게 소비기한을 정하면 된다.





생애 첫 취득세 감면, 미혼 특공

부동산 제도로 변화를 맞았다. 우선 해당 시·군 거주 무주택자로 제한된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이 달라진다. 거주지역 요건이 폐지되면 무주택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미계약분 발생 시 반복해서 청약을 진행한 것과 달리 본청약 60일 후 파기됐던 예비당첨자 명단을 180일로 연장하고, 예비당첨자 수도 세대수의 500% 이상으로 확대했다. 공공분양 청약 시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등 기혼자 중심의 특별공급 기회가 미혼 청년들에게도 돌아간다. '청년·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분양 50만호 공급계획'에서 발표한 공공분양 3가지 모델 가운데 '나눔형(시세 70% 이하 분양가+시세차익 70% 보장)'과 '선택형(임대 후 분양)'에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공급이 신설된다. 생애 첫 주택구입자 취득세 감면 요건이 완화된다. 생애 첫 주택구입자는 소득과 주택가격에 상관없이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면제된다. 2022년 6월 21일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이다. 취득세 감면 추정 예외 요건도 완화된다. 3개월 내 입주하지 않으면 취득세 감면분을 추정했으나, 기존 임대차 권리관계에 따른 입주 지연을 입증할 경우 추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2023년 연말정산 분부터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 및 성실사업자는 월세 세액공제율이 최대 15%로 상향된다. 근로소득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는 기존 10%에서 12%로 조정된다.



추억이 될 체크무늬 교복

교복 디자인으로 익숙한 체크무늬를 더는 볼 수 없게 된다. 명품 브랜드 버버리 측이 자사 체크무늬를 사용하는 교복 업체와 학교 측에 상표권 침해 관련 문제를 제기했고, 해당 무늬를 쓰는 학교들은 적어도 2024년까지 교복 디자인을 수정하기로 했다. 버버리의 체크무늬는 1924년 버버리가 검정, 하양, 주황, 밤색의 패턴에 중세 기사 문양을 넣은 것을 처음 대중에 공개했다고 알려졌다. 이후 대중적인 인기를 끌면서 버버리 브랜드의 상징이 됐다. 버버리 체크무늬를 교복에 적용한 학교는 200여 곳으로 집계됐다. 체크무늬가 소매, 옷깃 등 일부 사용된 경우가 있는가 하면 치마에 전반적으로 사용된 예도 있었다. 버버리는 재학생들의 기존 교복은 문제 삼지 않기로 했고, 교복 디자인을 변경해 신입생 교복부터 적용해달라는 입장이다.



사라지는 대학 입학금

모든 대학의 입학금 제도가 사라진다. 지난 2019년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국공립 대학교부터 단계적으로 입학금을 폐지해왔고, 이제 모든 대학에선 입학금을 걷을 수 없다. 2017년 1학기 기준 평균 입학금은 국·공립대 15만 원, 사립대 77만 원에 달하는 등 대학에 따라 천차만별이었다. 특히 입학금을 내야 하는 뚜렷한 이유가 없다는 점이 꾸준히 문제 제기돼왔다. 2017년 교육부 '사립대 입학금 실태 조사'에 따르면 사립대학은 입학금의 33.4%를 입학외 용도로 사용했다. 새해에는 입학금 폐지와 아울러 등록금을 학칙에 따라 2회 이상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신설, 고액 등록금에 대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버스·지하철 통합정기권

지하철과 버스 간 환승 할인이 가능한 통합정기권이 만들어진다. 정기권은 정해진 기간 안에 정해진 횟수를 사용하는 요금제 개념이다. 현재 서울에서는 5만5,000원 짜리 지하철 정기권을 구입하면 30일 동안 지하철 60회를 탈 수 있다. 서울지하철 기본 운임이 10km에 1,250원인 점을 감안하면, 44회 비용만으로 60회를 이용할 수 있는 셈이다. 지하철·시내버스 통합정기권이 도입되면 시내버스 환승 기능이 더해진다. 현재는 정기권에 버스 환승 기능이 없어 버스로 갈아탈 땐 새로 기본요금을 내야 한다. 통합정기권이 도입되면 지하철 인프라가 부족한 지방에서도 대중교통 이용요금 절감 혜택을 볼 수 있다. 국토부 측은 한 달에 최대 5만 원까지 요금 절약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부모급여 월 70만 원

아이를 낳으면 11개월까지 월 70만 원의 '부모급여'를 국가로부터 받는다. 12~23개월인 1세 아기를 키우는 가정은 매달 35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만 0세와 1세 아기를 가정에서 키우는 경우 월 30만 원(시설 이용 시 50만 원)씩 지급하던 영아수당을 통합·확대한 조치다. 2024년부터는 0세 아동 가정에 대해 70만 원에서 월 100만 원으로, 1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는 월 50만 원으로 확대된다. 부모급여와 어린이집 보육료는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는다. 2023년에 0세가 어린이집을 이용한다면, 부모급여 70만 원에서 보육료 50만 원을 차감한 금액이 부모에게 지급된다. 1세는 부모급여(35만 원)가 보육료(50만 원)보다 적기 때문에 추가 지급 받지 못한다. 보건복지부는 출산과 양육 초기 가정의 소득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서라고 이번 결정의 취지를 밝혔다.



최저임금 월 환산액 200만원 돌파

2023년 최저임금 시급은 전년보다 5% 오른 9,620원이다. 월 환산액(주 40시간·주휴 수당 포함)은 201만 580원. 월 환산액이 200만 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5년간 시간당 최저임금은 2018년 16.4% 오른 7,530원, 2019년 10.9% 오른 8,350원, 2020년 2.9% 오른 8,590원, 2021년 1.5% 오른 8,720원, 2022년 5.1% 오른 9,160원이었다. 군 장병들의 월급도 올랐다. 2022년 67만6,100원이었던 월급은 100만 원이 됐다. '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지원도 인상돼 월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된다. 정부 지원금을 포함하면 병장 월급은 최대 130만 원이다. 상병 월급은 61만200원에서 80만 원, 일병은 55만 2,100원에서 68만 원으로, 이병은 51만100원에서 60만 원으로 각각 올랐다.



2022년 대비
5%인상



전국한우협회 대한한우사료

- 한우 사료 품질과 가격의 표준점 제시
- 농가 주도 생산·원가공개·매달 가격 연동 시행

대한한우 사료의 원료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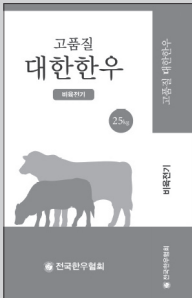
옥수수, 루핀후레이크, 대두박, 옥배아박, 채종박, 야자박, 팜박, 소맥피, 단백피, 비타민+미네랄혼합제, 황토, 미생물제, 당밀향+감미제, 번식개선편제

대한한우 고급육 사양관리 프로그램

비육 구분		어린송아지		육성기								비육전기								비육후기						비고	
급여사료명		대한한우		대한한우								대한한우								대한한우							
생후 월령		2~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출하월령 28개월 이상	
체중 (kg)		150		200	220	240	260	290	320	350	380	420	450	480	510	540	570	600	630	650	670	690	710	730	750	출하체중 750kg 이상	
일당증체량(kg)		0.8		0.8 - 1.0								1.0 - 1.2								0.6 - 0.8						0.84 kg	
조사료	건초	2.0		자유채식								2.0	2.0	1.0													
	볏짚											1.0	1.0	1.0	2.0	2.0	1.5	1.5	1.5	1.0	1.0	1.0	1.0	1.0	1.0		
배합사료 급여량			3.0	3.5	4.0	4.5	5.0	5.5	6.0	7.0	8.0	9.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9.5	9.0	9.0	8.5	8.0			

대한한우 번식우 사양 프로그램

사육구분		번식우육성(반추위, 소화기관 완성기)							임신우														포유우	
월령 (개월)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 경산우										포유중	
체중 (kg)		130 ~ 150	150 ~ 170	170 ~ 190	190 ~ 210	210 ~ 230	230 ~ 250	250 ~ 265	270 ~ 285	290 ~ 305	310 ~ 325	330 ~ 345	350 ~ 365	370 ~ 385	390 ~ 405	410 ~ 425	430 ~ 445	450 ~ 465	470 ~ 485	490 ~ 505	510 ~ 515	520 ~ 535		
일당증체량 (kg)		0.6 ~ 0.8							0.4 ~ 0.6														0.6	
1일사료 급여량 (kg)	구분	번식용 중송아지							임신우														임신우	
	배합	2 ~ 3 kg							3 ~ 4 kg														4 kg	
	섭취량	배합							배합														배합	
	조사료	조사료는 자유채식							조사료는 자유채식														조사료는 자유채식	
증감 요인		■ 겨울철(혹한기)과 환절기에는 10% 정도 증가시켜 줄 것							■ 겨울철(혹한기)과 환절기에는 10% 정도 증가시켜 줄 것 임신 7개월부터 10% 증가														■ 겨울철(혹한기)과 환절기에는 10% 정도 증가시켜 줄 것	



대한한우 어린송아지

적용범위 생후2개월~6개월

- 미아리산과 탄닌 함유에 의한 고창증과 설사 예방
- 천연물질을 의한 항병력 강화
- 반추미생물과 효모제 강화
- 식이섬유와 비타민/미네랄 강화에 의한 스트레스 완화
- 대용유함유에 의한 빠른 입몰 이기

구분	조단백	조지방	조섬유
에송아지	20.0	2.5	20.0
조회분	칼슘	인	TDN
10.0	0.9	1.5	70.0

대한한우 번식우

적용범위 5개월~임신우

- 발정과 수태를 최적으로 위한 충분한 영양소 공급
- 번식전용 비타민/미네랄 설계
- 황토균여에 의한 미네랄 보충
- 성정을위한충분한단백질공급

구분	조단백	조지방	조섬유
번식우	14.0	2.0	15.0
조회분	칼슘	인	TDN
15.0	0.8	1.2	68.0

대한한우 육성기

적용범위 생후7개월~14개월

- 성장을위한충분한단백질공급
- 골격과 내장의 발달을 촉진
- 적정에너지 공급
- 섬유소 공급에 의한 반추위와 소화기관 안정화
- 높은 수준의 비타민과 균형 있는 미네랄 공급

구분	조단백	조지방	조섬유
육성기	15.0	2.5	20.0
조회분	칼슘	인	TDN
15.0	0.7	1.2	70.0

대한한우 비육전기

적용범위 생후15개월~22개월

- 반추위기능을정상적으로유지
- 최대 성장을 위한 충분한 단백질 공급
- 비타민 A조절에 의한 고급육 향상, 육량과 육질등급 향상
- 간기능과 요석증 등 비육장애를 극소화하기 위하여영양소 균형
- 비육효과를 최대로 발현시키기 위하여쾌적한환경 조성 필요

구분	조단백	조지방	조섬유
비육전기	13.0	2.5	20.0
조회분	칼슘	인	TDN
15.0	0.7	1.2	73.0

대한한우 비육후기

적용범위 생후 23개월~28개월

- 근육내 지방 발달 극대화로 육질 향상
- 단백질과 에너지의 균형 있는 배합
- 간기능과 요석증 등 비육장애를 극소화하기 위하여영양소 균형
- 고급육 효과를 최대 발현시키기 위하여 TDN을 높여 줌
- 비타민 A조절에 의한 고급육 향상, 육량과 육질등급을 향상
- 과비방지

구분	조단백	조지방	조섬유
비육후기	12.0	2.5	20.0
조회분	칼슘	인	TDN
15.0	0.7	1.2	75.0

사료가격 투명화/합리적 가격/생산비 절감

고품질 한우사료 ‘대한한우’

한우 생산비 중 농가소득을 좌우하는 사료비 비중이 50%이상!
사료가격 결정의 주체는 농민이 되어야 합니다

23년 1월 협회전용 사료 ‘대한한우’ 가격 안내

공장출고가 기준(운송비 등 추가비용 반영안된 가격임)

※매월 1일 환율 및 유가(곡물가) 변동 등에 따라 기준가격 변동



어린송아지
15,125



번식우
11,625



육성
11,7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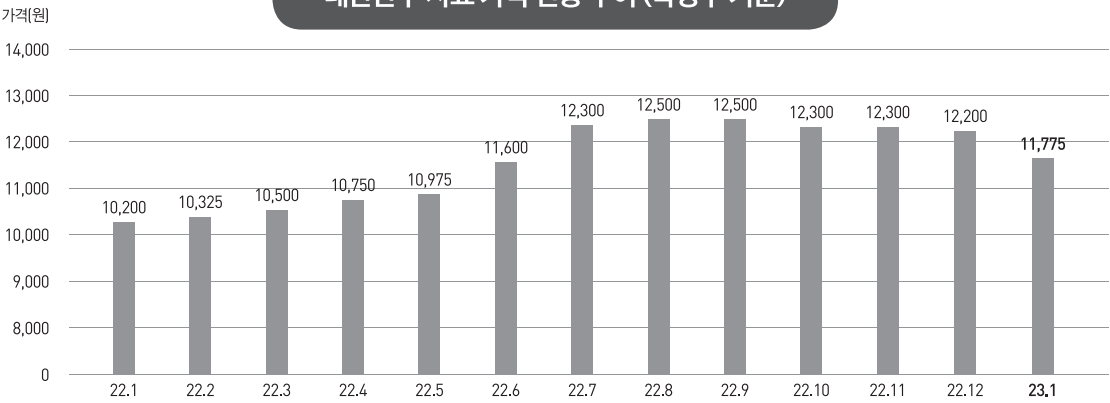


비육전기
11,975



비육후기
12,225

대한한우 사료 가격 변동 추이 (육성우 기준)



한우마당

Hanwoo Journal



전국한우협회 회원 소식지 **한우마당**은
매달 발행되는 월간지입니다.
한우마당은 대한민국 전체 한우 사육두수 약 70%에 달하는
협회 회원과 전후방업계에 배포되고 있습니다.
연간 15만부를 발행하고 있으며 양질의 정보는 물론,
축산관련 잡지 중 가장 많은 구독부수로
높은 전파력과 막강한 영향력을 자랑합니다.

광고문의

- 1) 광고 문의 및 접수: 025251053@daum.net
(본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 「월간 한우마당」 매체 소개 및 광고신청 안내 참고)
- 2) 광고규격: 188mm×257mm / 내부여백 7~10mm 필요
- 3) 광고금액: 홍보팀 문의 (장기계약 우대)
※ 「한우마당」 광고업체는 전국한우협회 홈페이지 홍보관 메뉴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매월 20일
원고 및
광고시안
마감

주요 배부처 및 일정

- 1) 협회 대의원 및 임원 등 지도자, 전국 지회·지부, 일반 회원농가
- 2) 농림축산식품부 및 전국 각 지자체 축산과
- 3) 전국 수의대학 및 동물생명, 축산학과, 특성화 대학 등
- 4) 전국 농축협 및 관련 유관기관, 한우협동조합, 전문지 언론사
- 5) 사료 기자재 등 한우마당 광고업체



구독안내

한우마당은 협회 회원이면 누구나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전국한우협회 홍보팀으로 문의주십시오.
☎ 02)525-1053 (내선 202 또는 218)

- 전국한우협회 홈페이지 <https://www.ihanwoo.org>
- 한우마당 뉴스 웹진 <http://www.ihanwoo.kr>



제24권 제1호(통권 194호) / 2023년 1월 10일 발행 <비매품>

발행인 김삼주 발행처 전국한우협회
광 고 이기찬 제 작 HNCOM
주 소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6길 9 2층
전 화 02)525-1053 / 02)597-2377

편 집 김재광
발 송 자산포스트
팩 스 02)525-1054

이메일 025251053@daum.net
인터넷 한우마당 www.ihanwoo.kr
한우협회 누리집 www.ihanwoo.org
등록번호 서초라 11499



전국한우협회